

# 수출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지원방안

2007. 12

주문배 · 이현동 · 마창모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주 문 배 :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

◆ 연구진

- 이 현 동 : 제3장
- 마 창 모 : 제2장, 제4장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조 용 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 김 병 섭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 사무관)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 머 리 말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용돌이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 동안 흑자산업으로서 우리 수산업은 외화가득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의 성장 동력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왔다.

그런데 세계의 상품시장 개방화를 통하여 세계인의 후생을 증진시키자는 목적으로 탄생한 WTO 체제의 출범 및 동시 다발적인 FTA 체결은 우리 수산업에 큰 변화를 강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의 수산물 교역시장에 있어서 무역장벽의 단계적 철폐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산물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약한 국가로의 수산물 수입증가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산물 수입자유화시대의 도래와 수산물의 국내생산 부족에 따른 수입증대로 말미암아 우리 정부는 2001년 처음으로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경험하게 된다. 그 이후 수산물의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늘어나 작년(2006년) 말에는 무려 1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정부는 최근 2015년까지 수산물 수출을 두 배로 늘린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포함한 「중장기수산물수출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목표가 달성된다면 2015년에는 20억 달러 이상의 수산물 수출실적을 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가파른 유가상승과 이에 따른 수출물류요금 인상, 노무비 증가 등의 원인으로 수산물 수출물류비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수산물 수출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 대책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발생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물류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정책측면에서는 물론 연구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정책담당자는 이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연구결과를 정책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WTO SCM과 현재 협상중인 수산보조금 협상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시점에 다시 한 번 관계 전문가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는 여유를 가지도록 당부하고 싶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WTO 체제하에 있어서 수출수산물 물류의 다양한 문제점 및 과제를 발굴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이정표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정책 입안자 및 수산물 수출관계자들에게도 의사결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7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이 정 환



1)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60	
2) 기타 수출지원 사례 / 72	
3. 외국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지원 현황 .....	80
1) 일본 / 80	
2) 인도 / 82	
3) 유럽연합(프랑스, 네덜란드) / 85	
4) 기타 국가의 수출지원 / 89	
4. 사례분석 결과와 시사점 .....	90
1) 사례분석 결과 / 90	
2) 시사점 / 93	
 제4장 수출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지원방안 .....	95
1. 수출수산물 물류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	95
1) 수출확대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향상 / 95	
2) 국내수산물의 품질경쟁력 강화 / 96	
3) 수산업의 생산기반 유지 / 96	
4) 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대외적 이미지 제고 / 96	
5) 농업부문과의 형평성 제고 / 97	
2. 수출수산물 물류 지원방안 .....	97
1) 수출수산물 물류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 97	
2) 수출수산물 물류지원방법 / 98	
 제5장 결론 .....	104
 참고문헌 .....	106
 부 록 .....	108

## 표 목 차

<표 1-1> 수산물 수출물류 관련 선행연구 .....	4
<표 2-1> 운송형태별 운송비 종류 .....	21
<표 2-2> 컨테이너의 규격 .....	22
<표 2-3> 해상운임의 종류와 내용 .....	24
<표 2-4> 수출제비용의 종류와 내용 .....	25
<표 2-5> 선적부대비용의 종류와 내용 .....	26
<표 2-6> 발생형태별 물류비 계산(영역별) .....	28
<표 2-7> 기능별 물류비 계산 .....	29
<표 2-8> 주요 수출수산물의 국내 생산량 .....	30
<표 2-9> 주요 품목별 수산물 수출실적 .....	31
<표 2-10>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	32
<표 2-11> 참치의 류별 수출실적 .....	32
<표 2-12> 김의 류별 수출실적 .....	33
<표 2-13> 굴의 류별 수출실적 .....	33
<표 2-14> 넙치의 류별 수출실적 .....	34
<표 2-15> 오징어의 류별 수출실적 .....	34
<표 2-16> 붕장어의 류별 수출실적 .....	35
<표 2-17> 톳의 류별 수출실적 .....	35
<표 2-18> 미역의 류별 수출실적 .....	35
<표 2-19> 바지락의 류별 수출실적 .....	36
<표 2-20> 전복의 류별 수출실적 .....	36
<표 2-21> 주요 품목별 수출형태 및 조건 .....	42
<표 2-22> 전체 수출수산물의 수출단가 및 물류비 비중 .....	43
<표 2-23> 수출수산물의 단계별 물류비 비중 .....	44
<표 2-24> 수출수산물의 물류비 중 선별비의 구성 및 비중 .....	45
<표 2-25> 수출수산물의 물류비 중 국내운송비의 구성 및 비중 .....	46
<표 2-26> 수출수산물의 물류비 중 국제운송비의 구성 및 비중 .....	46
<표 2-27> 수출수산물의 물류비 중 수출통관비의 구성 및 비중 .....	47

---

<표 2-28> 수출수산물의 각 품목별 수출단가 및 물류비 비중 .....	48
<표 2-29> 수출수산물의 각 품목별 · 단계별 수출단가 .....	49
<표 2-30> 품목별 원자재 확보 및 선별에 대한 인식도 결과 .....	51
<표 2-31> 품목별 수출품 선도유지에 대한 인식도 결과 .....	52
<표 3-1> 수출지원 관련 허용보조금의 유형 .....	57
<표 3-2> 부류별 지원대상 품목 .....	62
<표 3-3> 수출국 국가군 분류 .....	65
<표 3-4> 농축산물의 연도별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	68
<표 3-5> 지자체(도)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2007년 계획) .....	71
<표 3-6> 수출유망품목 개발 지원사업 .....	76
<표 3-7>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출종합대책(2004년) .....	82
<표 3-8> APEDA의 사업유형별 수출지원 .....	84
<표 3-9> 주요 국가의 농산물 수출지원기관 및 주요 활동 .....	89
<표 3-10>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요약 .....	91
<표 3-11> 기타 수출지원 사업 .....	92
<표 4-1> 수출물류비 지원에 따른 수출단가 대비 보조금 비율 .....	99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	6
<그림 2-1>	상품 물류의 구성 .....	11
<그림 2-2>	상품 물류의 형태별 영역 .....	12
<그림 2-3>	수출수산물의 주요 경쟁국가 .....	37
<그림 2-4>	수출기업의 kg당 수출단가 .....	37
<그림 2-5>	수출기업의 컨테이너 이용현황 .....	38
<그림 2-6>	수출기업의 수출 운반형태 .....	38
<그림 2-7>	수출기업의 수출조건 .....	39
<그림 2-8>	수출기업의 연간 수출물량 .....	39
<그림 2-9>	수출기업의 연간 수출금액 .....	40
<그림 2-10>	수출물류비의 범위 .....	43
<그림 2-11>	수출수산물의 kg당 포장재료비 .....	45
<그림 2-12>	수산물 수출시의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도 결과 .....	50
<그림 3-1>	WTO 농업협정상 수출보조의 분류체계 .....	59
<그림 3-2>	농림축산물의 주요 수출지원사업 구분 .....	60
<그림 3-3>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체계 .....	61
<그림 3-4>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물류비 지원 비중 .....	68
<그림 4-1>	수산부문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체계 .....	100

## ABSTRACT

### **A Study on Logistic Support Policies for Improving the Competitive Power of an Export Seafood**

Nowadays, the WTO regime is expanding and many Free Trade Agreements (FTAs) are proliferating amo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For this reason, Korea's trade deficit in seafood has been increasing since 2001. So, we should try to reduce the trade deficit in seafood through an aggressive export policy, because it is impossible or hard to control import quantities by economic barriers etc.

For increasing the exportation of seafood, some problems with exporting seafood must be solved as soon as possible. First, logistic costs for exporting seafood are relatively too high. Second, it is difficult to select and secure the raw materials because they are being produced by small producers and in remote areas. Third, seafood can easily decay. Fourth, it is hard to produce fixed standard seafood because of the special attributes of seafood.

Therefore, we need to identify some policies for increasing exports and improving problems with the exportation of seafoods.

First, we need to gather small exporting companies and make collective producing areas based on the main seafood producing districts. Second, we should consult with and provide information to seafood exporting companies for improving their competitive power. Third, for the sake of people's health, the government should strive to have safe and secure seafood produced by exporting companies by ensuring packaging materials and packaging technologies.

Fourth, if we have no choice but to support logistic costs directly,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ty between farm products and seafood, we should provide minimum support to seafood export companies under the acceptable limit because direct support is prohibited by the WTO's SCM Agreement.

## 요 약

### 1. 서론

우리 정부는 2001년 처음으로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경험하였으며, 그 이후 수산물의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늘어나 작년 말에는 무려 1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5년까지 수산물 수출을 두 배로 늘린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한 「중장기수산물수출진흥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의 가파른 유가상승과 이에 따른 수출물류요금 인상, 노무비 증가 등의 원인으로 수산물 수출물류비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수출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중 하나로서 「수출물류」 지원방안 제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중심으로 지원의 타당성, 지원의 범위, 지원의 규모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수출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물류비 지원방안은 WTO SCM과 이 규범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수산보조금 협상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류지원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WTO 체제하의 새로운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세계 수산물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산물이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서 「수출물류」 지원방안 제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수산물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중심으로 하여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물류비 지원의 타당성, 지원의 범위, 지원의 규모 및 간접적인 물류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수산물 수출물류의 현황 과 문제점

#### 1) 수산물 수출물류의 본질

### ① 수산물 물류의 개념

수산물 물류란 정해진 수산물을 정해진 장소에 일정한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보내주는 것으로, “원료수산물의 조달, 완제품의 생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산물의 수송, 보관, 하역, 포장, 가공 및 정보활동”으로 수산물 물류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특히, 비식품과는 달리 생물체로서 생화학적인 특성을 가지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물류는 안전성 확보와 품질유지라는 목적도 물류 효율화와 함께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수출물류는 수출을 위해 원자재(부품·반제품 포함)의 조달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산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최종 수입국 수입상 또는 소매상에게 이르기까지의 상품의 흐름과 상품의 사후처리(반품, 회수, 폐기)를 포함하는 물류유통활동의 부분으로 정의하였다.

### ② 물류의 구성

물류의 구성요소는 기본활동인 물류유통활동과 지원활동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보관, 하역, 포장, 수송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유통가공활동과 정보유통활동(정보수집활동과 정보제공활동)으로 구분된다.

물류의 영역은 조달물류, 생산물류, 사내물류, 판매물류 및 반품물류, 폐기물류로 구분하였다. 특히, 수출물류는 거래선 발굴을 위한 일련의 행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거래가 종료되는 때까지 전체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 ③ 수출물류비의 산정

수산물의 수출물류비는 선별포장비, 포장재료비, 국내운송비, 국제운송비, 수출통관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세부적으로 선별포장비는 선별포장시의 인건비와 선별작업장 사용료를 포함하고, 국내운송비에는 창고의 상차비와 선적항에서의 하차비가 포함된다. 특히 물류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운송비는 해상(항공)운송비와 수입국의 국외통관비, 수입국 내륙운송비가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수출통관비에는 항만시설 이용료, 컨테이너세, 서류발급비, 수출통관수수료, 터미널화물 취급수수료, LCL화물 작업료 등이 포함된다.

## 2)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물류 실태

수출수산물의 평균 수출단가는 10,661원/kg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수출단가 대비 물류비는 12.3%로 수산물 1kg의 수출단가에는 물류비용이 1,299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품목별 수출수산물의 수출단가(2006년 기준)는 전복이 23,341원/kg으로 가장 높았으며, 미역이 14,120원/kg, 넙치가 12,914원/kg, 김이 10,048원/kg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서 2006년 평균, 단일품목에 대한 연간 수출물량이 50톤 미만인 기업은 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0~300톤 미만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30%를 차지하였다. 단일품목을 1000톤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품목에 대한 연간 수출금액이 1억~10억원인 경우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연간 수출금액이 10억~50억원인 경우가 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품목을 1억원 이하로 수출하는 기업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수출수산물의 수송형태

수산물은 수출시 해상 컨테이너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활어류의 수출시에는 활어차 또는 수조장치가 있는 배로 운송되고 있으며, 참치 등은 bulk 상태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에 있어서는 40ft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50%, 20ft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의 특성상 냉동냉장(reefer) 상태로 운반되는 경우가 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건조(dry) 상태로 운반되는 경우는 수산물 가공품 등의 경우로 전체의 약 35%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수출수산물의 수출운송비 조건

수출상이 도착항까지 운임을 부담하는 CFR(CNF)로 계약하는 기업이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자가 선박에 적재하는 비용까지만 부담하는 FOB로 계약하는 기업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CFR과 FOB로 병행하여 계약하는 기업은 1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③ 수출수산물의 물류비목별 현황

어류, 패류, 해조류의 수출단가 대비 물류비 중에서 해조류의 물류비가 13.6%로 가장 부담이 크게 나타났으며, 패류와 어류는 수출단가대비 물류비가 각각 11.4%, 10.8%로 구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kg당 물류비는 어류의 경우 768원, 패류가 1,052원, 해조류가 1,874원으로 나타났다.

수출물류비 중에서 운송비(국내운송비 18.1%, 국제운송비 30.6%)의 비중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포장재료비 23.2%, 선별포장비 21.0%, 수출통관비 7.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수출수산물 비목별 현황

어류의 경우에는 수출시에 국제운송비가 전체의 51.9%를 차지하여 패류 및 해조류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패류의 경우에는 국내운송비가 20.4%를 차지하여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조류의 경우에는 선별포장비가 29.2%로 타 품목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선별포장비와 포장재료비를 합하면 수출물류비의 52.5%를 차지하여 수출물류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 새우 등으로 구성된 기타품목은 포장재료비가 2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운송비의 경우에는 수출물류비 중 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수산물의 선별비

선별비에는 선별을 위한 인건비와 작업장 사용료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인건비의 비중이 평균 8할 이상을 차지하였다.

#### ○수출수산물의 포장재료비

수출수산물의 kg당 포장재료비는 100~500원 미만이 전체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0원 미만이 전체의 25%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출수산물의 국내운송비

수출수산물의 물류비 중 국내운송비에는 창고 상차비와 선적항 하차비를 포함한 상하차비와 창고에서 선적항까지의 운송비가 포함되는데, 상하차비의 비

중은 26.8%이고, 운송비의 비중은 7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수산물의 국제운송비

국제운송비는 해상(항공)운송비, 수입국 국외통관비, 수입국내륙운송비로 구성되는데, 해상(항공)운송비가 92.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입국 국외통관비 4.2%, 수입국내륙운송비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와 패류의 경우에는 수입국 국외통관비의 비중이 타 품종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 ○수출수산물의 수출통관비

수출수산물의 수출통관비는 항만시설이용료, 컨테이너세, 서류발급비, 수출통관수수료, 터미널화물취급수수료, LCL화물작업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수출통관수수료와 서류발급비가 각각 34.2%와 22.2%를 차지하였다. 특히, 어류의 경우에는 서류발급비가 45.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패류의 경우에는 수출통관 수수료가 54.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④ 수출수산물의 품목별 물류비 현황

참치의 경우에는 kg당 물류비용 중 국제운송비가 91.6%를 차지하고 있고, 김의 경우에는 포장재료비의 비중이 34.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의 경우에는 국제운송비가 44.9%를 차지하였으며, 포장재료비가 2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넙치의 경우에는 운송비가 92.4%(국제운송비가 51.1%, 국내운송비가 4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넙치의 주요 산지가 제주도이지만 부산항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문제로 인하여 국내운송비가 많이 드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오징어의 경우에는 포장재료비 34.1%, 선별포장비 25.2%로 높게 나타났다. 붕장어는 포장재료비가 44.4%를 차지하는 등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톳의 경우에는 선별포장비가 61.2%를 차지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타 품종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지락과 전복은 국내운송비가 각각 27.0%, 33.4%로 매우 높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물류의 문제점

수산물 수출물류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목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특징을 바탕으로 주요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수출물류비의 과다

수산물 수출물류비는 수출단가 대비 1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로 인해 수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산물의 특성상 생산에서 가공, 수출단계까지 선도 유지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kg당 단가가 낮은 반면, 신선냉장 또는 활어상태로 수출되어야 하므로 운송, 보관에 드는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원자재 확보 및 선별의 어려움

수산물은 특성상 생산에 계절성이 있어 지속적인 원료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산지가 분산되어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산지에서 조달된 물량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료 구매시 가격변동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물량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물량이 적을 때는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해 물량확보 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하고 있다.

#### ③ 수출품의 선도유지의 어려움

수산물의 특성상 수출품의 선도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출품 중에는 활어상태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 수출통관 및 해상운송 중에 폐사하거나 선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수출업자들이 크게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수출형태인 냉동수산물의 경우 출고시 냉동상태로 운반되어야 하고, 냉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로 인한 부대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수출 시에는 20ft 냉동컨테이너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수출시 이와 같은 부과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 ④ 수출품 통관의 어려움



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라 식품에 대한 검역 및 통관이 철저하므로 이로 인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 이 기간 중 수출품의 폐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⑤ 기타 수출물류 관련 과제

경쟁국 수출품과의 품질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다양한 기기의 필요에 따라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해조류의 품질을 결정짓는 이물질 선별기의 현대화가 필요하지만 해조류를 수출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약 2억원에 달하는 최신 선별기를 구입하는데 애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문제와 관련하여 수출기업들은 수질검사, 선별 및 포장 인력의 건강검진을 포함한 위생검사, 자가품질검사 등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이 수출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국 바이어의 상황에 따른 불규칙적인 주문에 수출물량을 납기일 안에 맞추어 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비도 없이 바이어에 의해 원하는 포장단위가 주문 시마다 달라질 때 이를 해결하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 4) 수출수산물 물류비 지원의 한계

전술한 바와 같이 농산물 수출보조금과는 달리 WTO SCM 협정상 수산물 수출보조금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물류비 보조의 경우 수출 상대국의 소송 제기 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물론 WTO 규정상에도 일정 부분의 수출보조 허용가능성을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PartIV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규정을 통해 물품가격의 1%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최소허용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의 논의 동향에 의하면 허용보조금 규정은 거의 사문화된 상황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수출물류비의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지원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고, 수출물류의 효율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3. 수출수산물의 물류 지원방안

우리 정부(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 물류지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물류비 지원을 통하여 수출수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수출수산물의 물류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부문을 제거하여 물류의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출수산물의 물류비에 대한 직접 지원은 WTO SCM과 이 규범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수산보조금 협상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류지원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출수산물 물류비 지원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 1) 수출수산물 물류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수출수산물 물류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수출확대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향상이다. 수산물 물류지원은 직간접적으로 수출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수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게 되고, 이로 인한 수출확대는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가격을 인상시키게 되어 결국 생산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특히, 물류비 지원 및 절감 노력은 수출가격에 포함되어 국내 수출생산조직과 수출가격협상, 바이어와의 가격협상에 활용됨으로써 국내에서 어민의 수취가격 인상 및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내수산물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수산물의 특성상 품질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생산에서 최종수출지역까지의 Cold chain system 마련을 통해 선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국내 수산물이 국제시장에서 품질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단계별 물류지원정책을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수산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제시하였다. 수산물 시장개방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수산물 수출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전략은 대외개방 시대에 수산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농업부문과의 형평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물론 WTO SCM 협정 및 농업협정에 의하여 국내보조금 지원정책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농업과 수산업의 구분은 무의미할 정도로 동일한 지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산업의 경우에도 보조금 협상이 타결되어 수산보조금의 허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정부분 수출물류비 지원을 포함한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2)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지원 방안

수출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물류 지원방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수출수산물의 물류 지원방안 중 하나로 물류비 지원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수출수산물 물류지원의 대상은 수출실적이 있는 자 또는 물품공급자로서 직접 수산물을 생산 또는 가공하거나 최소한 선별작업장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가공제품은 주원료가 국내산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주원료의 일부를 외국산과 혼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국내 수산물 수출기업의 수출물류 지원정책이 국내 수산물 생산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출수산물 물류지원의 기준은 수산물 생산원료를 생산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수출단가의 1%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표준 수출물류비의 8%를 지급하도록 하여, 향후 대상 수입국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분쟁 시 상대국의 소송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sup>1)</sup>

이와 같이 현행 WTO 체제하에서는 수산물 수출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간접적인 물류 지원방안이 장기적으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생산지에 기반을 둔 품목별 지역별 수출클러스터화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역특산품 또는 수출원재료 주산지에서 품목별 수출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내수용 수산물과 함께 수출용 수산물을 생산 및 수송하게 함으로써 물류비용(고급포장, 브랜드화, 품질유지, 홍보, 수출정보 등의 비용)을 절감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에는 부산감천항에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조성이 완료되면 수출업체들이 입주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수출이 용이한 지역에서의 물류지원시설은 부산 또는 광양 등지에서의 수출단지로 충분하지만, 수산물의 특성상 소량 생산되고, 원자재의 확보가 불확실하며, 관련 자원이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생산지에 기반을 둔 수출클러스터화

1) 구체적인 수산물 수출물류지원방법(기준, 규모,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제4장 3. 2) 참조.

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접적인 물류지원활동인 수산물 수출현지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을 제시하였다. 수산물 수출업체 중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물품이 수출되는 현지에서의 타 경쟁국 수출품의 가격동향 및 점유율 등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20개에 대해서는 매달 수출현황, 수출지에서의 가격동향, 품목별 점유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별 업체가 적극적으로 수출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어가와 수출회사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출회사에 대해서는 수출입조합에 전담팀을 마련하여 컨설팅 사업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컨설팅 사업의 지원내용은 상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입국 검역, 통관제도, 수출추진 시 유의사항, 문제점 등에 대해 농업부문에서와 같이 상시 컨설팅 및 해외조사를 할 수 있도록 KMI와 같은 전문기관에 해외수산물시장정보센터 운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품질 안전수산물 생산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산부문에서도 수출수산물에 대해 우수수산물관리제도 인증사업을 수행하고, ISO 9001(국제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50% 지원을 통해 수출수산물의 고품질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수산물의 항생제검사, 수질검사, 선별포장 인력에 대한 검사 등을 공인 및 공공검사 기관에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90%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sup>2)</sup>.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의 하에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의 일본 수출시 통관상의 편의(선통관 후검사)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본 수출용 채소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출업체 및 농가에 ID를 부여하여 농약의 안전사용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수산부문의 넙치수출시 원용한다면, 수출검사 및 통관시일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수산물 생산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수산물의 위생 및 선도유지를 위해서는 포장재료 및 포장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며, 포장의 재질 및 방법에 따라서 안전한 수산물 수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수산물의 위생 및 선도유지를 위한 기술개발 또는 우수한 포장자재 사용으로 인한 포장재료비의 증대는 영세수산물 수출업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

2) 농업의 경우에는 잔류농약 검사의뢰 수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음.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통해 유통기한이 길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포장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수산업은 오랫동안 무역수지 흑자산업으로서 외화가득을 통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2001년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이후 수산물의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늘어나 2006년 말에는 16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해양수산부)는 최근 2015년까지 수산물 수출을 두 배로 늘린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포함한 ‘중장기수산물수출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목표가 달성된다면 2015년에는 20억 달러 이상의 수산물 수출실적을 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채택한 배경은 WTO체제의 확대·강화와 동시 다발적인 FTA 체결의 확산을 중심으로 한 시장개방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2001년 이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수입관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출확대를 통해 적자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주요한 정책적 수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고유가, 환율하락, 안전성 문제 등 국내외적인 수산업 및 수산물 수출의 부정적인 여건변화로 인해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새로운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입대국 일본을 비롯한 EU도 우리 정부가 처해 있는 유사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이웃 일본은 2002년 농수산물식품 수출배증계획을 수립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및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대상국 소비형태 조사연구, 바이어 정보, 수출브랜드화, 수출홍보, 수출물류지원 등

수출 마케팅면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sup>3)</sup> 또한 EU도 역내 시장 대상 EU 농산물 판매 촉진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하였으며, 대상품목은 유기농산물, 지리적 표시 부여 제품 등 고품질 농산물, 유지류, 우유, 치즈, 육류, 과일 및 채소류, 화훼류, 감자 등이다. 이 판매촉진 사업은 2000년 12월 19일 EU 이사회에서 역내 시장에서의 농산물 및 식품 판매촉진 및 정보제공에 대한 지원을 허용키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다.<sup>4)</sup>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림부나 산업자원부도 국산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림부는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해오고 있으며, 그러한 지원 결과가 수출농산물의 확대에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출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수산물 물류지원 방안 모색은 수산물 수출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소용돌이 상황에서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로 판단된다. 다만, WTO SCM(보조금협정)과 이 규범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수산보조금 협상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류지원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부(해양수산부)의 정책적 수단으로서 수산물 수출물류 지원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산물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 수출물류 지원대상과 규모, 지원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적으로 물류비 지원이 곤란하다면, 간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물류 지원방안, 즉 물류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방향만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2002년 일본 농림수산성의 농림수산물 수출배증계획에 의한 수출지원정책의 결과, 2002년 0.9억엔에 불과하였던 일본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2006년에 3.1억엔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음. 상세한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성 내부자료 참조.

4) EU집행위 규정 EC Nr. 1071/2005(2005.7.1).

## 2. 선행연구 검토

일반 물류 및 농축산물 물류지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다수 있지만, 수산물 수출물류지원을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보고서는 <표 1-1>과 같이 전무한 실정이다.

수산물 수출물류지원을 연구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2004년에 감우회경영회계연구원이 농축산물 수출물류비용 지원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원가산정 용역」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수출물류의 이론적 배경, 농축산물의 수출물류비용 산정,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기준 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광양시에서 전창곤(2001년) 등이 농산물 수출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 건설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농촌경제연구원)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물류센터 건설 기본계획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셋째, 옥선종(1996년) 등이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첫째, 수출기업의 물류비 지출현황, 둘째, 수출물류의 애로 사항, 셋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물류기업의 정책방안으로 수출물류기업이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수산물 수출물류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일반 수출물류나 농축산물 수출물류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연구를 통하여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의 정책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 부분적이거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 수산물 수출물류 관련 선행연구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원가산정 용역 -연구자(년도): 감우회경영회계 연구원 (2004) -연구목적: 농축산물 수출물류 비용 지원사업의 적절한 수행 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문헌조사 -현지실태조사	-수출물류의 내용 분석 -농축산물 실적 수출물류비용 산정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기 준 산정
	2	-과제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 한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 방 안 -연구자(년도): 옥선중(1996) -연구목적: 수출기업의 국제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 시	-현지실태조사	-수출기업의 물류비 지출현황 -수출물류의 애로 사항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 책방안
	2	-과제명: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 터 건설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전창곤외(2001) -연구목적: "광양 농산물 수출 물류센터"의 건설에 있어서 효 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및 관 리방안 및 효과적인 건설방안 제시	-문헌조사 -타당성 분석	-농산물 수출물류 실태 및 문 제점 -수출물류센터 운영의 기본계 획 -수출물류센터 거래량 및 시설 별 규모 -운영주체 선정 및 관리방안 -수출물류센터 재무적 타당성 분석 -수출물류센터 수요자 조사분 석 -광양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건 설계획설명서
	3	-과제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 한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 방 안 -연구자(년도): 옥선중(1996.5) -연구목적: 수출기업의 국제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 시	-현지실태조사	-수출기업의 물류비 지출현황 -수출물류의 애로 사항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 책방안

수산물 수출물류 관련 선행연구(계속)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차별성	-수출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물류 지원방안 제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선행연구 없음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 방법 - 규범적 연구	-수산물의 수출물류 현황과 문제점 -국내외 농림축산물 수출물류 지원 사례 -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물류 지원방안

###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 연구는 WTO 체제하의 새로운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세계 수산물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산물이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서 「수출물류」 지원방안 제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수산물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중심으로 지원의 타당성, 지원의 범위, 지원의 규모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지만, 만약 수출물류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면 물류비 절감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효율화 방안에 대한 그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설문조사 및 면접법을 활용하여 수산물을 수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출 물류비의 비목별 비중을 조사하고 아울러 수출물류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관련 사례연구 및 비교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농림축산물 수출물류지원 관련 국내외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수산물 수출 물류지원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모색하기 위해 국내사례뿐만 아니라 WTO 회원국의 수출물류지원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셋째, 제도적 연구 및 규범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WTO SCM 및 관련 국제규범의 조화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즉, 수출물류 지원범위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WTO SCM과 수산보조금 협상동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원범위 및 시기 등 그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은 선행연구나 실태에 대한 자료 축적이 미흡한 분야이므로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산물 수출업자 및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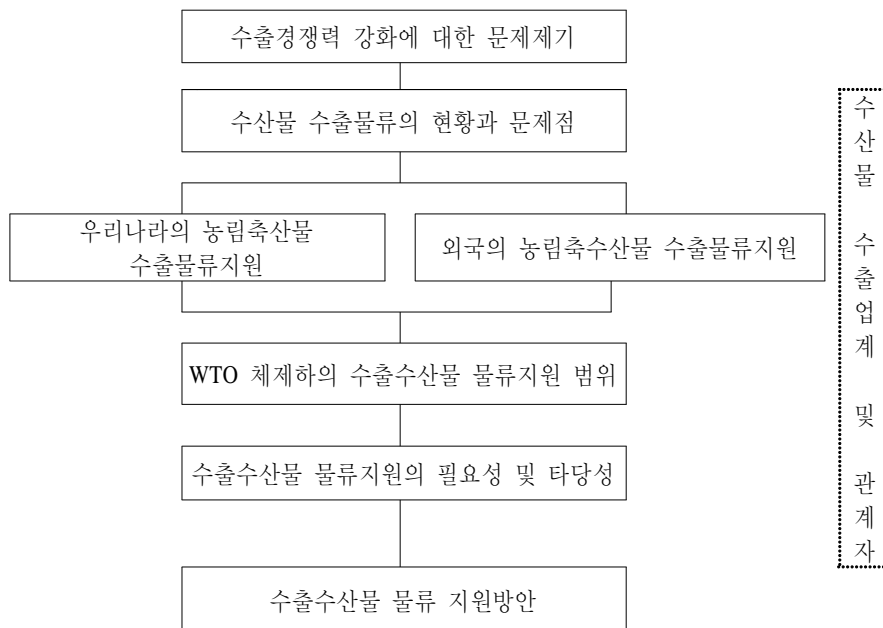
의 직·간접적인 조사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은 전체 5개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 선행연구 검토 및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수산물 수출물류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수산물 수출물류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우선 그 범위를 한정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산물 수출물류의 일반이론으로서 개념과 절차, 물류비 산정의 일반 기준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으로 수산물 수출물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수산물 수출물류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HS 코드별, 0301, 0302, 0303 등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만, 개별 국가별로 크게 다른 수출물류 현상을 바탕으로 하는 개별 국가별 수산물 수출물류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과제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이 과제에서는 포괄적으로 수출수산물의 수출물류 지원방안에 한정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수출수산물의 물류지원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 정책적 아이디어 및 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책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 연구추진체계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 WTO 체제하에서 수산물 수출물류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를 검토하고, 수산물 수출물류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산물 수출물류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수산물 수출물류 지원기준, 대상, 방법, 절차 등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제5장 결론에서 전체를 요약, 정리하고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제 2 장 수산물 수출물류의 현황과 문제점

### 1. 수출물류의 일반적 개념

#### 1) 수출물류의 개념

##### (1) 수출물류의 정의

물류<sup>5)</sup>란 상거래 활동에서 발행하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의 재화 및 용역의 물리적 이전의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물류에 대한 관심은 1920년 마케팅 분야에서 유통활동의 구성요소로서 연구되었으나, 비즈니스에 응용되어 물류(physical distribution)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게 된 것은 1960년경이다.

이러한 물류의 용어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60년대 초에 미국에서 일본으로 “physical distribution”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어 「물적유통(物的流通)」으로 번역되고, 이것이 다시 「물류(物流)」로 축약되어 1980년대 초에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sup>6)</sup>

일반적으로 상품의 유통은 물류(물적유통)와 상류(상적유통)로 구별된다. 이 물류라는 용어와 함께 로지스틱스(logistics)가 사용되고 있는데, 로지스틱스를 “물류활동에서 화물의 흐름을 시간적·공간적으로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하여 계획, 집행, 통제하는 시스템적 경제활동”<sup>7)</sup>으로 정의하여 협의의 물류와 구별하기도 한다.

---

5) 물류의 개념은 논자의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물류를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영역별로는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물류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능별로는 수배송물류, 하역물류, 보관물류 및 창고물류, 포장물류, 정보물류로 나누어 설명할 수도 있다.

6) 한응수, 식품물류(WINBOOKS, 2005), p. 10. 미국 Arch W.Shaw는 “시장 유통상의 문제” (1912)에서 최초로 물류란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는 경영활동을 생산, 유통 및 조성활동으로 구분하고, 다시 유통활동을 수요창조활동과 물적공급활동으로 나누었으며, 유통의 방법을 논하면서 물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7) 위의 책, p. 372.

최근 물류활동에 있어서 근대화가 진전됨에 따라 보다 고도화되고 전문화되어 종합화·체계화를 지향하게 되면서 물류(physical distribution)가 의미하는 범위도 포괄적인 로지스틱스(Logistics)로 확대되었고, 사외물류까지를 관리하는 공급사슬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로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물류의 개념이란 “원자재의 조달, 제품의 생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수송, 보관, 하역, 포장, 가공 및 정보활동”<sup>8)</sup>을 말하며, 수출물류는 수출을 위해 원자재(부품·반제품 포함)의 조달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산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최종 수입국 수입상 또는 소매상에게 이르기까지의 상품의 흐름과 상품의 사후처리(반품, 회수, 폐기)를 포함하는 물류유통활동의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 물류의 목적과 기능

물류는 정해진 상품을 정해진 장소에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보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물류의 목적은 물적 유통의 합리적 관리에 의하여 물적 유통 코스트의 절감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번영과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기업에 있어서 물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R의 원칙을 들 수 있다.<sup>9)</sup> 7R의 원칙이란, 적절한 상품(right commodity), 적절한 품질(right quality), 적절한 증량(right quantity), 적절한 시기(right time), 적절한 장소(right place), 적절한 인상(right impression)<sup>10)</sup>, 적절한 가격(right price)으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7R의 원칙을 제대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하역, 포장, 보관, 수송, 정보, 반가공 등의 물류체계를 같은 목표에 통합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물류는 이와 같이 7R의 통합과 효율화를 통하여 고객만족을 이끌어 내야 한다.

상품 및 기업에 대한 고객만족의 요구와 물류비의 증가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8) 강종희·길광수 외, 21세기 글로벌 해운·물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 p. 372.

9) 한응수, 앞의 책, pp. 12~14.

10) 여기서 적절한 인상(impression)이란 상품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좋은 인상을 고객에게 부여하여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임.

그런데, 고객만족과 물류비 양자는 어느 측면에서 역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물류체계는 고객에 대한 만족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물류비를 최소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물류비의 절감이란 배송비용은 물론 보관비용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물류의 효율화는 단순히 물류비를 줄인다고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물적유통전략의 수립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물적유통 관련 활동들을 부분체계가 아닌 전체 체계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①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② 신속성 ③ 공간의 효율적 이용 ④ 재고의 조정 ⑤ 창고 규모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가지는 물류의 주요한 기능은 첫째, 환적기능-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지역간 화물의 수송 및 하역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대·소 수송업체가 입주하여 영업용 화물을 수송하거나 자가물류업체가 입주하여 자체화물의 연계운송을 담당한다. 둘째, 집·배송기능-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일정 지역 내에서 화물을 산지로부터 집하하거나 최종 수요지까지 배송하는 기능을 갖고 주로 최종상품을 취급하며, 자가물류업체가 직접 담당하는 경우와 대·소 수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보관기능-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원재료 혹은 제품의 분류, 보관 및 일부 가공기능을 수행하고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창고 및 냉동 냉장창고, 위험물창고 등의 보관시설과 가공공장이 결합된 형태이다. 넷째, 조립·가공기능-생산자가 일괄적으로 생산한 반제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조립 혹은 가공하는 제조기능을 대행한다. 특히 공동의 업종이 수행하는 동일한 조립·가공기능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단의 조립 가공기능과 차이를 갖는다. 다섯째, 컨테이너처리기능-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화물을 컨테이너에 혼재하거나 컨테이너로부터 분류하는 기능을 하며, 국내에서는 컨테이너를 수출입화물에서 사용하는 대형선사가 담당한다. 여섯째, 통관기능-수출입화물의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갖고, 항만이나 공항이 아닌 물류단지에서 통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

### (3) 물류의 구성과 영역

물류의 구성요소는 기본활동인 물자유통활동과 지원활동으로 구분된다. 전자

는 보관, 하역, 포장, 수송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유통가공활동과 정보유통활동(정보수집활동과 정보제공활동)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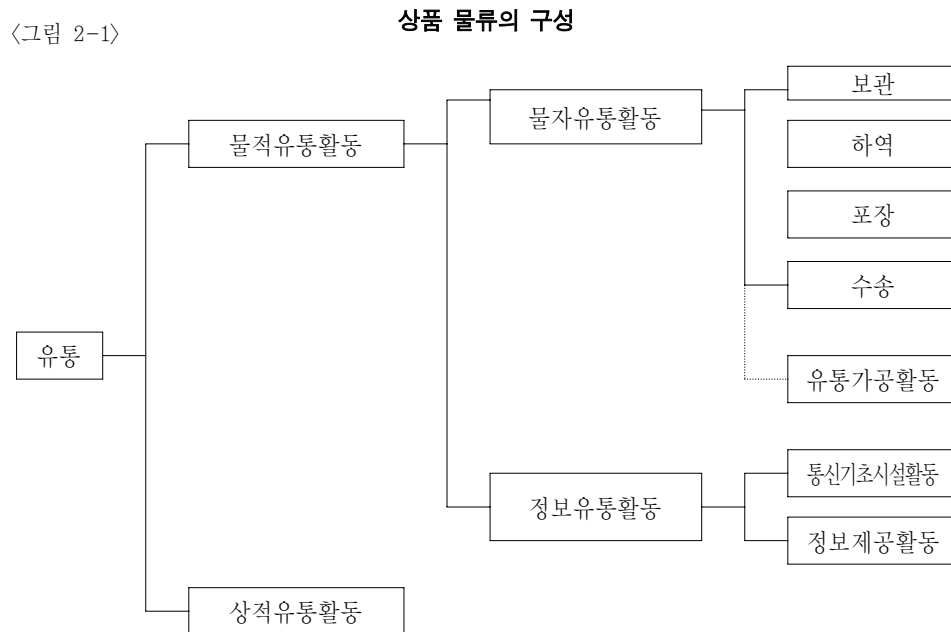
물류의 기본활동으로서 물자유통활동은 첫째, 보관설비를 제공하는 활동과 그 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보관을 수행하는 보관활동이다.

둘째, 보관과 수송의 양단에 있는 물품의 취급활동으로 물품의 환적을 주 내용으로 하역설비를 제공하거나, 그 설비를 이용, 직접 하역을 수행하는 하역활동이다.

셋째, 물품 개개의 포장인 개장, 포장화물 내부의 포장인 내장, 포장화물 외부 포장인 외장의 3종류로 나뉘는 포장을 위한 설비제공 및 설비를 이용, 직접포장을 하는 포장활동이다.

넷째, 차량, 선박 등의 수송설비를 제공하고 그것에 의해 화물수송을 행하는 수송활동이며, 이 수송 기초시설활동은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의 기본시설 및 그것에 부대하는 설비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상품물류의 구성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 : 상품의 전체 유통에서 상적유통영역을 제외한 영역이 물류영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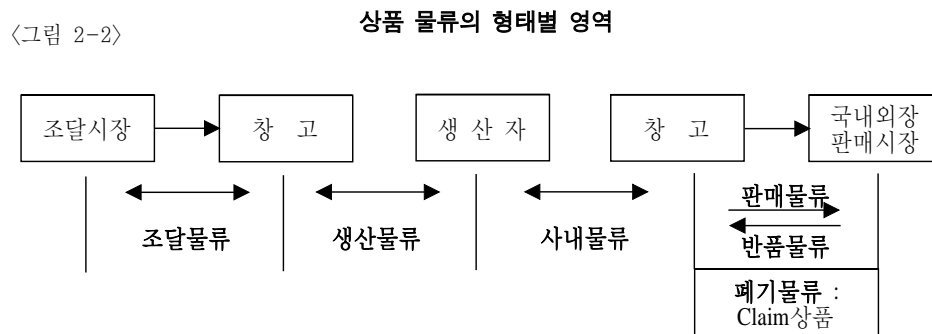
또한 물류는 기본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으로서 유통가공활동과 정보유통활동



을 들 수 있다. 첫째, 유통가공활동은 보존을 위한 가공 및 동일기능의 형태 전환을 위한 가공 등 물류유통상의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둘째, 정보유통활동은 통신기초시설활동과 정보제공활동으로 구분되는데, 통신기초시설활동은 전신, 전화, 우편 등 주요 산업용 통신의 기본시설 및 부대활동을 의미하며, 정보제공활동은 메시지 및 메시지의 담당자에 의한 정보의 시간적, 공간적 전달 활동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거래활동을 위해 장소나 설비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거래기초시설활동과 동산, 부동산의 거래를 뜻하는 협의의 거래활동으로 구성된다.

물류의 영역을 형태별로 구분하여 보면 <그림 2-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원료 조달의 공간인 조달시장에서의 조달물류, 둘째로 조달창고에서 생산 또는 가공단계의 생산물류, 셋째로 생산 또는 가공회사 내의 물류로 사내물류, 넷째로 소비자 단계의 판매물류 및 반품물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류의 내용별 영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1)</sup>

### ① 조달물류

물류의 시발점으로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물자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원자재를 구두나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하

11) 상세한 내용은, [www.logistics21.com](http://www.logistics21.com) 참조.

여 도착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협력업체의 입장에서는 판매(납품) 물류가 되고, 구입처의 입장에서는 조달물류가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 ② 생산물류

조달된 원자재의 고객에 대한 판매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된 원자재를 일시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자재, 반제품, 재공품, 제품 등의 다양한 형태를 관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물자는 정지되어 있는 순간부터 보관비 등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공정분석을 통하여 공정을 단축하고 재고를 삭감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생산물류의 주요 업무이다.

## ③ 사내물류

생산업자의 생산된 완제품 출하시부터 판매 보관창고까지 운송하여 출고준비 작업까지의 물류활동을 말한다.

## ④ 판매물류

판매물류는 완제품의 판매로 출고되어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을 말한다. 즉, 생산된 제품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창고에서 출고하는 과정과 배송센터 내에서 유통가공, 분류, 배송 등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활동을 관리한다. 제품은 판매되어야 다시 돈으로 환산되어 기업에 돌아오게 되므로 잠시도 창고에서 머무르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의 내용들이 관리대상이 된다.

## ⑤ 반품물류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자체의 문제점(상품 자체의 파손이나 이상) 발생으로 상품의 교환이나 반품을 위한 물류활동을 말한다. 판매 또는 제공된 물품의 반환과 관련된 물류로 반환된 물품을 회수, 운반, 분류, 정리, 보관, 처리하

는 업무가 이에 해당되며,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리콜제의 확산과 함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팔면 끝이다!’라고 하는 관념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품물류의 중요성은 물품이 반환되는 것은 물품의 공급처로부터 소비자를 거쳐 다시 공급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품질의 저하에 따른 부대비용의 발생으로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가격은 더 떨어지고 이익을 잠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품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반품이 발생하게 되므로, 회사의 전사적인 입장에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한 후, 제품설계부터 관련부문이 서로 협조하여 반품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⑥ 폐기물류

파손 또는 진부화 등으로 제품이나 상품, 또는 포장용기 등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나 기능을 수행한 후 소멸되어야 할 상황일 때 제품 및 포장용기 등을 폐기하는 물류활동을 말한다.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되는데, 물류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가정이나 기업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수집, 운반, 보관, 매립, 소각하거나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 2) 수출물류의 실무절차

### (1) 수출물류의 개요

수출절차는 수출계약의 체결 후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거래가 종료되는 때까지 일련의 행정적, 법규적 흐름을 의미한다. 수출절차를 규정하는 법규로서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기본사항을 관리하는 대외무역법, 수출대금의 결제방법을 규정한 외국환관리법, 수출물품에 대한 품질을 규정한 수산물품질검사법(수산물 대상), 물품의 통관검사를 위한 관세법 등이 상호 보완적으

로 활용되고 있다.

## (2) 일반적인 수출절차(신용장 거래방식)

### ① 수출준비

수출을 위해서는 우선 거래선 발굴을 위한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동에는 자사 홍보물의 제작·배포, 박람회 및 무역사절단 참가, 국내외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 등이 있다. 그 다음은 신용조회단계로서 상대업체의 특성, 자본, 대금지불 능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② 수출계약 및 신용장 개설

수출계약은 어느 한 쪽의 청약(Offer)에 대해 승낙(Acceptance)을 하게 되면 성립하며, 후일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 내용에 대한 판매계약서(Sale Contract)를 작성 후 양자간에 교환해 두는 일이 필요하다.

수입업체는 계약이 체결된 후 자국거래은행을 통해 수출업체의 거래은행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 ③ 신용장 내도

거래은행(Advising Bank)을 통해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체는 먼저 신용장상의 조항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신용장의 진위성 여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등을 체크해야 한다.

### ④ 수출승인(필요시)

대외무역법에 의거,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 다변화공고 등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만 수출승인이 필요하며, 종전의 제한 승인품목을 제외한 자동 승인품목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승인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현행 승인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대금결제에 대한 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승인기관은 현행 외국환은행에서 각 품목별 추천기관으로 변경된다.

### ⑤ 수출물품 확보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물품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수출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제조, 생산하거나 완제품(원자재)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구매(수입)하는 방법이 있다.

수출물품 또는 원자재를 구입시 구매 및 운전자금 등의 무역금융지원이 가능하며, 수출업체가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는 수출 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무역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 ⑥ 수출검사

생산이 완료된 수출물품이 수출검사 대상품목인 경우 수출통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수출검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출검사란 수출물품의 대외성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수출 검사법에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검사에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지만,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업자의 희망검사제도이므로 수출수산물의 검사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 ⑦ 해상(항공)운송 및 보험

수출물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운송을 위하여 선박회사를 물색, 선정한 후 선적예약을 해야 하며, 이때 선적 의뢰서(Shipping Request)를 통하여 선적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수출통관 완료 후 지정된 선박에 수출품을 선적하고 선박 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을 교부받는다.

### ⑧ 수출통관

수출통관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으로, 수출물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 신고를 필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는 하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수출신고는 전자문서(EDI)로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며,

별도의 허가, 승인, 표시 등을 요하는 수출물품은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수출통관시 구비서류는 수출신고서(전자문서), 수출승인서(수출승인물품에 한함),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기타 수출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

### ⑨ 수출대금회수

수출물품을 선적 완료한 수출업체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한다. 수출대금을 지급한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보내어 동 대금의 추심을 의뢰한다.

## 3) 수출물류비의 일반적 산정기준

### (1) 물류비의 개요

일반적으로 물류비 증가의 주요원인은 유가상승, 물동량 증가, 다품종 소량 생산품의 빈도가 높은 점과 인건비 상승, 도로체증 및 고객의 추가 물류서비스 요구로 인한 증가가 대부분이며, 감소요인으로는 물동량 감소, 매출액증가, 물류체제개선, 물류공동화, 물류표준화, 아웃소싱, 물류 자동화, 재고감소 등이 있다. 따라서 물류비용 분석시 각 항목에 맞는 적절한 전략과 비용예측으로 합리적인 물류비 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물류비를 기능별로 보면, 상품 가격이 저가일 경우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보관비와 재고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유통가공비 순으로 그 구성비가 낮아지고 있다.

물류비 산정의 일반기준은 물류비를 일반적으로 상세하게 원천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물류원가 계산의 관점에서 보면, 관리회계방식에 의한 물류비 계산 기준을 말하며, 기업에서 물류비 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과 같은 상세한 물류비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물류비 수준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물류비 산정의 간이기준은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로부터 간단하게 추산하는 방식으로 물류원가 계산방식에서 보면, 재무회계방식에 의한 물류비 계산 기준을

말한다. 상세한 물류비 정보보다는 개략적인 물류비 정보나 자료 정도로 만족하는 중소기업 등 비교적 물류비 관리수준이 낮거나 물류비 산정의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준이다.

물류비의 계산 목적은 물류비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하여 실적물류비를 발생요인별로 계산하는 데 있다.

## (2) 영역별 물류비 분류

물류비 영역은 기업경영의 주요 영역 중 어느 영역에서 발생한 물류비인가를 식별하기 위해 구분하는 것으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분하기도 한다. 이를 3가지로 나누면, 조달물류비, 사내물류비, 판매물류비로 나눈다.

### ① 조달물류비

물자가 조달지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보관창고에 입고되어, 생산공정에 투입되기까지 발생하는 물류비를 말하며, 운송, 하역, 검수, 입고, 보관, 출고 등 물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사내물류비

조달보관 창고에서 원재료 등을 이동하여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시점부터 생산과정 중 공정과 공정간에 원재료나, 반제품의 운송활동, 보관활동 및 생산된 제품을 창고에 보관하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하며, 포장, 운송, 하역, 분류, 보관, 재고 등 사내에서 발생한 물류비를 포함한다.

이 과정의 비용분류는 사내의 조직단위별(공장, 지점 등), 물류경로별(수배송 경로 등), 보관 장소나 보관 방식별(물류센터, 창고보관 등) 등과 같이 물류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면 사내물류비 범위가 명확해진다.

### ③ 판매물류비

생산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는 활동부터 그 이후의 모든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 즉 반품 물류 활동과 용기회수, 파손 물품비 등의 물류

비도 포함한다.

#### ④ 반품물류비

판매한 제품의 반품에 수반하는 물류비로서 반품의 수송비, 보수비도 포함된다.

#### ⑤ 폐기물류비

파손 또는 진부화된 제품, 포장용기나 포장재료 등을 폐기하기 위한 물류비이지만, 공해방지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⑥ 물류관리비

물류관리 부문의 인건비 및 물류활동의 계획, 조정 및 통제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

### (3) 기능별 물류비 분류

물류기능이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을 의미하는데, 물자를 이동, 보관하는 일련의 부대활동이 해당된다. 기능별 물류비는 운송비, 보관 및 재고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유통가공비, 물류정보관리비로 구분한다.

#### ① 운송비

운송비는 물자를 물류거점간 및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서 소비된 비용을 말하며, 이 비용은 장소에 의한 제품의 효용을 창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생한다.

#### ② 보관 및 재고관리비

물자를 창고 등 보관 시설에 보관하는 활동에서 소비되는 비용을 말하며, 이 비용은 시간에 의한 제품의 효용을 창조하는 목적에서 발생하며, 제품을 보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재고 물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까지 포함한다.



### ③ 포장비

물류포장활동에서 소비된 비용을 말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인도되지 않고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출되는 물류 포장에 소비된 비용을 의미한다.

### ④ 하역비

물자의 운송과 보관활동에 수반되어, 동일시설 내에서 물자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활동이 소비된 비용을 말하며, 입하, 격납, 피킹, 분류, 출고 등과 같이 물류의 세부활동에서 발생하는 하역작업은 독자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주로 운송비나 보관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편적이다.

### ⑤ 유통가공비

물자의 유통과정에서 물류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를 가공하는 데 소비된 비용을 말하며, 물류활동상의 효율 증대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다.

### ⑥ 물류정보관리비

물류정보를 처리하는 데 소비된 비용을 말한다.

## (4) 세목별 물류비 분류

세목별 물류비 분류는 기본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로 구분하는데, 해당 기업의 물류비 관리 실무에 적절한 회계부문의 비용계정과목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물류비를 상세화하며, 계정과목의 분류 및 정의 등은 기업회계기준 및 원가계산준칙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체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① 재료비

재료비는 물류와 관련된 재료의 소비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포장이나, 운송기능에서 발생한다. 재료비의 항목에는 포장재료비, 연료비 등 물류활동을 위한 소모용 비품 등이 포함된다.

## ② 노무비

물류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노동력에 대한 비용으로 운송, 보관, 하역 및 관리 등 전반적인 기능과 조달, 사내, 판매 등 전 영역에서 발생하며, 임금, 급료, 잡급비, 물류종사자에 대한 제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다.

## ③ 경비

경비는 재료비 이외에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으로 주로 물류관리의 기능에서 발생하며, 회계 및 관리부문 등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전부 해당되고, 공공서비스료, 관리유지비, 감가상각비 및 일반 경비로 구분한다.

## ④ 이자

물류시설이나 재고 자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을 의미하는데 금리라고도 한다.

## (5) 수출물류비 분류

일반적으로 수출물류비용은 수출물품대를 제외한 부대비용으로 ① 내륙운송비, ② 수출 제비용(부두비용, 행정비용, 선적비용 등), ③ 운임, ④ 보험료, ⑤ 수입통관제비용, ⑥ 수입국 수입부대비용 등 기타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이는 수출입 당사자간의 거래조건 및 형태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목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내륙운송비

내륙운송비의 종류는 <표 2-1>과 같이 컨테이너육송료, 철도운송요금, 연안해송요금, 일반화물자동차운송료이다.

<표 2-1> 운송형태별 운송비 종류

종류	내용	지급처
컨테이너 육송료	부두/CY에서 목적지까지 컨테이너육상운송요금	운송회사
철도운송요금	부산항에서 의왕 ICD까지 철송운임	철도청
연안해송요금	부산, 인천, 군산, 여수항간 해송요금	선사
일반화물자동차운송료	일반화물의 육상운송요금	운송회사

부대조항에서 적용되는 모든 운임 및 요금은 천원 미만을 사사오입하여 적용한다(단, 부가가치세는 제외). 운임의 적용방법은 20ft 컨테이너운임은 40ft 컨테이너 운임의 90%, 45ft 컨테이너운임은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12.5%를 적용한다.

20ft 컨테이너 운임의 경우 컨테이너 자체 중량을 제외한 내장화물의 중량이 10톤 이하인 경량 컨테이너 2개를 동일 장소에서 적재운송(Combine 운송)할 경우,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08%를 적용한다(단, 냉동 컨테이너는 제외).

냉동 컨테이너 운임은 해당지역 요율의 30% 할증률을 가산 적용한다. 화주의 요청에 따라 공휴일 및 심야에 운행할 시에는 해당지역 운임의 20%를 추가 할증 적용한다. 또한 트랙터 대기료는 Door 도착 후 40ft의 경우 3시간, 20ft의 경우 2시간까지 무료이고 이를 초과시 매시간당 40ft 및 20ft별 일정 요금을 추가 계산하며, 동일항 내에서 부두-CY간 셔틀(Shuttle) 운임은 40ft의 경우와 20ft의 경우별로 일정 요금을 적용한다.

그리고 동일항 내에서의 환적컨테이너(T/S CONTAINER) 운임은 40ft의 경우와 20ft의 경우별로 다른 요금이 적용되며, 컨테이너의 규격은 <표 2-2>와 같다.

<표 2-2> 컨테이너의 규격

EQUIPMENT	INTERIOR DIMENSIONS	DOOR OPENING	TARE WEIGHT	CUBIC CAPACITY	PAYLOAD
45' HIGH CUBE CONTAINER	L :13.582m W:2.347m H:2.690m	W:2.340m H:2.584m	4.110kg 9.061 lbs	85.7 cbm 3.026 cuft	28.390kg 62.589 lbs
45' HIGH CUBE REEFER CONTAINER	L :13.102m W:2.294m H:2.509m	W:2.467m H:2.290m	5.200kg 11.464 lbs	75.4 cbm 2.663 cuft	27.300kg 60.186 lbs
45' REEFER CONTAINER	L :11.207m W:2.246m H:2.183m	W:2.216m H:2.183m	4.600kg 10.141 lbs	54.9 cbm 1.940 cuft	25.881kg 57.059 lbs
40' HIGH CUBE CONTAINER	L :12.056m W:2.347m H:2.684m	W:2.340m H:2.584m	2.900kg 6.393 lbs	76.0 cbm 2.684 cuft	29.600kg 65.256 lbs

컨테이너의 규격(계속)

40' HIGH CUBE REEFER CONTAINER	L :11.775m W:2.286m H:2.491m	W:2.286m H:2.454m	4.320kg 9.524 lbs	65.8 cbm 2.324 cuft	28.180kg 62.126 lbs
40' Dry FREIGHT CONTAINER	L :12.051m W:2.340m H:2.380m	W:2.286m H:2.278m	3.084kg 6.799 lbs	67.3 cbm 2.377 cuft	27.397kg 60.401 lbs
20' Dry FREIGHT CONTAINER	L :5.919m W:2.340m H:2.380m	W:2.286m H:2.278m	4.000kg 4.189 lbs	33.0 cbm 1.165 cuft	22.100kg 48.721 lbs
12' Dry FREIGHT CONTAINER	L :3.588m W:2.309m H:2.366m		1.590kg	19.6 m <sup>3</sup>	
12' Dry REEFER CONTAINER	L :3.041m W:2.276m H:2.124m			14.52m <sup>3</sup>	

화물톤수의 종류는 중량톤과 용적톤(부피톤)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중량톤(Weight Ton : W/T)은 화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며, 중량화물의 운임 산정을 위한 톤수의 경우 국제적으로 세 가지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1 Kilo(=Metric) Ton은 2,240lbs이며 1,000kg이다.<sup>12)</sup>

둘째, 용적톤(Measurement Ton : M/T)은 화물의 부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용적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피톤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CBM이다. CBM이란 Cubic Meter의 약어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입방체를 말한다. 20피트 컨테이너에는 보통 25CBM이 적재되므로 1CBM 크기의 화물이 25개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또한, 화물에 대한 해상운임, 보관료 등 물류요금은 화물의 산출된 중량톤수로 용적톤수 중 큰 숫자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Revenue Ton(R/T)이라 부른다.

12) 1 Long(=Gross) Ton은 2240파운드로서 1,016.05kg이며 영국을 중심으로 사용되며, 미국에서 사용하는 1 Short(Net) Ton은 2,000파운드로서 907.18kg이므로 Long ton과 Short ton은 100kg 이상이나 차이가 남.

## ② 운임(Freight)

운임(Freight)에는 해상운임과 항공운임이 있다. 해상운임은 <표 2-3>과 같다.

<표 2-3>

해상운임의 종류와 내용

종류	내 용	지 급 처
기본 운임	항로별 화물운송내용 - FCL : 지역별 컨테이너당 비용 - LCL : 용량(용적)운임 × 환율 × 수량 운송조건 - Freight Prepaid : 송화주부담(CIF, CFR) - Freight Prepaid : 수화주부담(FOB, FAS, FX WORK)	항로별 운임 동맹및협의회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 운임표시 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통화의 가치변동률을 감안, 기본운임에 일정비율(일정금액)을 하주에게 부과하는 통화할증료	항로별 운임 동맹및협의회
BAF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운임에 일정비율(일정금액)을 하주에게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 FAF : 북미항로의 경우(Fuel Adjustment Factor)	항로별 운임 동맹및협의회

항공운임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산출기준은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국제항공운송협회)의 The Air Cargo Tariff I & II 및 Tariff Coordinating Conference Regulation의 규정에 따라 항공화물의 운임을 산출하고 있다. 둘째, 부대비용은 화물취급수수료(Handling Charge), Pick-up Service Charge, AWB(항공화물운송장) Fee 등이며, 셋째, 항공운임 산출을 위한 일반규칙은 항공화물의 요율은 공항에서 공항까지의 운송만을 위하여 설정된 것이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적, 통관, 집화, 인도, 창고, 보관 혹은 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별도로 계산된다. 그리고 항공화물의 요율은 출발지국의 현지통화로 설정되며,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한 방향으로만 적용된다. 또한 운임은 출발지로부터 중량에 kg 또는 lb당 적용요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운임 및 종가요금(Valuation Charge)은 함께 선불이거나 도착지 지불이어야 한다.

## ③ 수출제비용

수출제비용은 <표 2-4>와 같다.

<표 2-4> 수출제비용의 종류와 내용

비 목	항 목	비 고
1. 부두비용	1) 항만시설이용료 2) 컨테이너세 3) 서류발급비 4) 서류발송비	Wharfage Charge Container Tax TEU당 20,000 Documentation Fee 동남아 7,522원 DHL 기본료 20,000원 기타 9,000원
2. 선적비용	1) 수출통관비용 ① 수출검사수수료 ② 파출검사수수료 ③ 타소장치허가수수료 ④ 임시개청허가수수료 ⑤ 통관수수료 2) 통관관련세금 ① 관세 3) 과세사보수수료 4) THC 5) CHC 6) CFS Charge	FOB × 0.09 ~ 0.18%  건당 4,500원 기본료 4,000 감정가격 × 2/1000  FOB × 0.15% Terminal Handling Charge Container Handling Charge LCL 화물 작업료
3. 은행수수료	1) NEgo 수수료율 2) LOCAL L/C 개설수수료 3) 수입 L/C개설 수수료율 4) 환가료	- 매매기준율(전신환 매입률에서 원이사 절사분) × 향해일수 ×연환가율(3M Libor+2%) ×송장금액 (Invoice Value) × 1/360 - 이자(0.1%) ×송장금액(Invoice Value) ×매매기준율 ×1/3 (이는 3개월을 1term으로 하고, 1개월 한도로 개설한 것임) - 이자(0.1%) ×송장금액(개설금액) ×매매기준율 × 1/3(이는 3개월을 1term으로 하고, 1개월 한도로 개 설한 것임) - 상업송장금액 ×10 ÷360 ×매매기준율 ×연금환가 료율(Us\$ 7.3%, JP¥2.1%)
4. 통지수수료	1) L/C가 수입자로부터 개설 또는 내용이 변경될 시 은행을 통해 통지되는데 이와 같은 은행을 통지은행이라 하며, 이때 통지은행에서 통지대가로 부과하는 것을 말함 2) 은행 및 통지방식에 따라 다르며, 자체양식에 의한 통지의 경우 20,000원, 단 순통지의 경우 15,000원, EDI에 의한 통지의 경우 10,000원임	

## ④ 선적부대비용

선적부대비용은 <표 2-5>와 같다.

〈표 2-5〉 선적부대비용의 종류와 내용

항 로	종 류	THC	CFC Charge	CAF	BAF
북미수출 (ANERA)	20	101,000	10,165원 (LCL THC 포함)		U\$148
	40	137,000			U\$185
	LCL				
	R 20'	217,500			
	R 40'	289,000			
유 럽 (FEFC)	20	100,000	9,800원 (LCL THC 포함)	0%	U\$61
	40	136,000			U\$121
	LCL				U\$245
	R 20'	198,000			
	R 40'	287,000			
한 일 (한국근대 수송연합회)	20	101,000	4,500원		U\$20
	40	137,000			U\$40
	LCL	6,000			U\$2
	R 20'	135,000			
	R 40'	180,000			
동남아 한중(IADA)	20	101,000	4,500원		U\$25
	40	137,000			U\$50
	LCL	5,500			동남아지역
	R 20'	132,000			
	R 40'	178,000			
호 주 (ANZESC)	20	100,000	5,500원	E/S W/N Aust, PNG : -13% NZ : -2.0%	E/S
	40	136,000			W/N Aust,
	LCL	5,500			PNG :-1.0%
	R 20'	198,000			NZ : -1.5%
	R 40'	287,000			

주: R은 Reefer Container

#### 4) 수출물류비의 산정방법

물류비의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원가계산의 수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어떤 계정과목의 비용항목을 설정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물류비를 제품종류별로 계산할 것인가, 판매지역별로 계산할 것인가, 또는 고객별로 할 것인가에 대해 계산대상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물류기능을 파악해야 하는가, 또는 어떤 지불형태의 물류비를 계산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검토한다. 실제의 계산절차는 이러한 과정을 역으로 하여 발생형태별 계산, 기능별 계산, 관리목적별 계산의 순서로 실시하면 된다. 여기서는 발생형태별과 기능별 계산에 대해서만 소개하기로 한다.<sup>13)</sup>

##### (1) 발생형태별 물류비 계산방법

물류비의 발생형태별 계산은 1개월 또는 물류원가계산 기간에 소비된 물류비를 발생형태별로 혹은 지불형태별로 분류하고 집계하는 절차를 말한다.

자가물류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투자보수비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를 나누어서 전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실제 소비량에 소비가격을 곱하여 계산하고, 후자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지불액을 배부한다.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해서 전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실제 작업시간 또는 작업량에 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후자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지불액을 배부한다. 경비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공공서비스비, 관리유지비, 일반경비를 계산하며, 감가상각비는 실제 내용년수와 잔존가치를 매입가격의 10%로 한 정액법에 의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투자보수비는 물류활동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평가액 및 물품, 제품의 재고자산 장부가액에 적정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자사지불물류비는 전술한 자가물류비에 위탁물류비를 합해 계산하는데, 여기서 위탁물류비는 일정기간 동안에 있어서 물류활동의 일부를 사외의 물류업자에게 위탁하고 지불한 실제 발생액을 기초로 한다.

기업물류비는 자사지불물류비에 타사지불물류비를 합해 계산하는데, 타사지불

13) 상세한 내용은 한응수, 앞의 책, pp. 280~286을 참조.



물류비는 조달과 판매로 구분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발생건수, 또는 발생수량에 건적비용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표 2-6〉 발생형태별 물류비 계산(영역별)

발생형태별				영역별	조달 물류비	사내 물류비	판매 물류비	반품 물류비	폐기 물류비	합계		
기업 물류비	자 사 지 불 물 류 비	자 가 물 류 비	재료비	자재비 연료비 소모품 공구·기구·비품 기타								
			노무비	임금·급료·수당 복리후생비 기타								
			경수조수소임보 기	전기료 가스도료 조세공과금 수선비 소모품비 임차료 보험료 기타								
			일반경비									
			특별경비	감가상각비 사내금리 기타								
			자가물류비									
			위탁물류비									
			자사지불물류비합계									
			타사지불물류비									
			기업물류비총계									

주 : 물류정보비, 물류관리비도 각 영역 및 합계에 산입한다.



## 2. 수산물 수출물류의 현황과 문제점

### 1) 주요 수출수산물 현황

#### (1) 생산현황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수산물 중 어류로는 참치와 넙치, 패류로는 굴, 바지락, 전복, 해조류로는 김, 톳, 미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수산물 중 바지락을 제외하고는 국내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8〉                      **주요 수출수산물의 국내 생산량**                      (단위: 톤, %)

	품목 \ 연도	2002년	2006년	연평균 증가율
1	참치	264,941	293,716	2.1
2	김	210,024	217,561	0.7
3	굴	190,179	314,312	10.6
4	넙치	25,190	46,150	12.9
5	오징어	368,008	367,295	0.0
6	붕장어	8,232	15,242	13.1
7	톳	16,097	24,058	8.4
8	미역	243,224	325,940	6
9	바지락	25,410	21,886	-2.9
10	전복	134	3,166	88.2
11	기 타	1,124,749	1,402,790	5.7
	합 계	2,476,188	3,032,116	4.1

자료 : 관세청

#### (2) 수출현황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연평균 1.3%씩 감소하였으며 주요 5대 품목 중에서는 참치, 굴, 오징어가 감소하였으나 김, 넙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 주요 수출품목의 국내생산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시

장에서 중국 수산물에 대한 가격경쟁력 약화와 국내 수산물 소비증가<sup>14)</sup>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 주요 품목별 수산물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톤, %)

	품목	2002년		2006년		연평균 증감률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1	참치	97,573	273,524	100,191	227,964	0.5	-3.6
2	김	6,275	37,709	7,475	61,730	3.6	10.4
3	굴	17,217	76,122	10,578	55,508	-9.3	-6.1
4	넙치	4,026	39,638	3,855	51,969	-0.9	5.6
5	오징어	72,156	65,089	36,688	47,399	-12.7	-6.1
6	붕장어	8,232	57,732	5,583	43,009	-7.5	-5.7
7	돔	4,682	33,588	3,447	23,773	-5.9	-6.7
8	미역	10,218	20,400	11,356	21,761	2.1	1.3
9	바지락	9,510	24,188	5,894	17,766	-9.1	-6
10	전복	-	-	415	17,123	-	-
11	기 타	199,995	532,431	182,016	520,946	-4	-1.9
	합 계	429,884	1,160,421	367,498	1,088,948	-3.1	-1.3

자료 : 관세청

수산물의 국가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연평균 증감률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일본 수출이 2002년 이후 중량과 금액면에서 연간 10.7%, 5.4%씩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02년 이후부터 중국, 태국,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출이 일본, 미국 중심에서 다른 국가들로 다변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일본 수출금액 및 수출량은 전체대비 각각 31%,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는 1970년 17.3kg에서 2005년 48.03kg으로 연평균 3%씩 증가하였다.

〈표 2-10〉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톤, %)

		2002년		2006년		연평균 증감률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1	일 본	179,069	823,117	113,909	659,523	-10.7	-5.4
2	미 국	25,462	77,625	20,821	95,613	-4.9	5.3
3	중 국	44,290	48,345	44,423	75,414	0.1	11.8
4	태 국	46,295	34,492	65,443	61,688	9.0	15.6
5	뉴질랜드	18,395	21,167	21,872	39,383	4.4	16.8
6	스 페 인	24,071	33,077	19,488	28,167	-5.1	-3.9
7	대 만	5,871	16,857	4,639	18,453	-5.7	2.3
8	홍 콩	1,876	8,445	1,574	12,514	-4.3	10.3
9	이탈리아	7,094	12,155	4,619	11,620	-10.2	-1.1
10	러 시 아	1,985	2,340	6,602	8,015	35.0	36.0
11	기 타	75,520	82,815	64,108	78,558	-4.0	-1.3
	합 계	429,884	1,160,435	367,498	1,088,948	-3.8	-1.6

자료 : 관세청

참치의 류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4.4% 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다랑어의 경우에는 연간 29% 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치는 2007년 현재 20개 수산회사에서 수출하고 있으며,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표 2-11〉 **참치의 류별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

HS코드	2002년	2006년	증감률
날개다랑어(0303410000)	13,507	5,458	-20.3
황다랑어(0303420000)	63,557	63,297	-0.1
가다랑어(0303430000)	14,806	40,984	29.0
눈다랑어(0303440000)	123,171	95,351	-6.2
참다랑어(0303450000)	7,605	739	-44.2
남방참다랑어(0303450000)	8,203	302	-56.2
기타(0303490000)	35,289	16,057	-17.9
합 계	266,138	222,188	-4.4

주 : 참치와 관련된 주요 수출 HS코드에 대해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총괄표의 참치수출실적과 데이터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www.kita.net

김의 류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10.0% 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형태는 마른김(1212201010)이며, 2007년 현재

42개 업체가 일본, 대만,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김의 류별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

HS코드	2002년	2006년	증감률
마른것(1212201010)	15,970	24,803	11.6
냉동한것(1212201030)	51	304	56.3
기타(1212201090)	2,612	2,194	-4.3
합 계	18,633	27,301	10.0

주 : 김과 관련된 주요 수출 HS코드에 대해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총괄표의 김 수출실적과 데이터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www.kita.net](http://www.kita.net)

굴의 류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5.8%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까지만 해도 밀폐용기(1605901010)인 굴통조림과 냉동굴의 수출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굴통조림의 수출이 2002년 이후 연간 8%씩 감소하여 최근에는 냉동품 위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현재 21개 업체가 굴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굴의 류별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

HS코드	2002년	2006년	증감률
냉동한것(0307102000)	26,852	27,068	0.2
건조한것(0307103000)	5,215	7,101	8.0
밀폐용기(1605901010)	27,731	12,932	-17.4
합 계	59,798	47,101	-5.8

주 : 굴과 관련된 주요 수출 HS코드에 대해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총괄표의 굴 수출실적과 데이터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www.kita.net](http://www.kita.net)

넙치의 류별 수출실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7.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넙치는 활어로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등으로의 수출을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다. 현재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10개 업체에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넙치의 류별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

HS코드	2002년	2006년	증감률
활어(0301998000)	39,036	51,386	7.1
합 계	39,036	51,386	7.1

주 : 넙치와 관련된 주요 수출 HS코드에 대해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총괄표의 넙치 수출실적과 데이터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www.kita.net](http://www.kita.net)

오징어의 류별 수출실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1.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요 수출형태인 조미와 냉동이 각각 연간 15.6%, 14.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오징어는 주로 일본,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냉동오징어는 거의 전량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현재 오징어를 수출하는 업체는 37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5〉 **오징어의 류별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

HS코드	2002년	2006년	증감률
냉동한것(0307491010)	7,573	4,039	-14.5
염수장(0307492000)	269	336	5.7
건조한것(0307493000)	1,034	690	-9.6
밀폐용기(1605901080)	477	217	-17.9
훈제(1605902010)	322	345	1.7
조미(1605909010)	11,530	5,852	-15.6
합 계	21,205	11,479	1.1

주 : 오징어와 관련된 주요 수출 HS코드에 대해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총괄표의 오징어 수출실적과 데이터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www.kita.net](http://www.kita.net)

붕장어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1.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붕장어는 주로 활어상태로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10개 업체가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붕장어의 류별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

HS코드	2002년	2006년	증감률
활어(03031995000)	17,410	16,658	-1.1
합 계	17,410	16,658	-1.1

주 : 붕장어와 관련된 주요 수출 HS코드에 대해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총괄표의 붕장어 수출실적과 데이터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www.kita.net](http://www.kita.net)

툰의 류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8.3% 씩 감소하였으며, 2007년 현재 13개 업체가 툰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업체들의 주요 수출형태는 건조 툰으로 거의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툰의 류별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

HS코드	2002년	2006년	증감률
건조한것(1212203010)	33,213	23,506	-8.3
기타(1212203090)	365	266	-7.6
합 계	33,578	23,772	-8.3

주 : 툰과 관련된 주요 수출 HS코드에 대해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총괄표의 툰 수출실적과 데이터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www.kita.net](http://www.kita.net)

미역의 류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1.6%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현재 40개 업체가 건조미역, 염장미역, 냉동미역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미역의 류별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

HS코드	2002년	2006년	증감률
건조한것(1212202010)	10,467	10,875	1.0
염장한것(1212202020)	8,410	7,061	-4.3
냉장한것(1212202030)	60	8	-39.6
냉동한것(1212202040)	822	3,547	44.1
기타(1212202090)	640	269	-19.5
합 계	20,399	21,760	1.6

주 : 미역과 관련된 주요 수출 HS코드에 대해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총괄표의 붕장어 수출실적과 데이터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www.kita.net](http://www.kita.net)



바지락의 류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8.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현재 10개 업체가 산것·신선·냉장형태로 바지락을 수출하고 있으며,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9〉 **바지락의 류별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

HS코드	2002년	2006년	증감률
산것신선냉장(0307911800)	21,922	13,528	-11.4
밀폐용기(1605901030)	1,930	2,884	10.6
합 계	23,852	16,412	-8.9

주 : 바지락과 관련된 주요 수출 HS코드에 대해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총괄표의 봉장어 수출실적과 데이터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www.kita.net](http://www.kita.net)

전복의 류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8.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현재 14개 업체가 활어형태로 전복을 수출하고 있으며, 거의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0〉 **전복의 류별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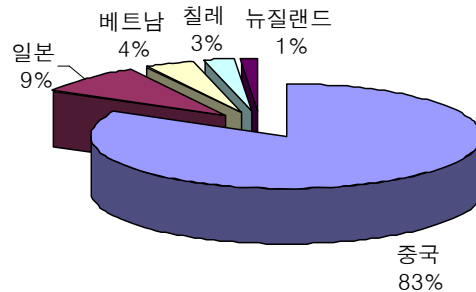
HS코드	2002년	2006년	증감률
산것신선냉장(0307911800)	14	1,6665	-8.9
합 계	14	1,665	-8.9

주 : 전복과 관련된 주요 수출 HS코드에 대해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총괄표의 전복 수출실적과 데이터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www.kita.net](http://www.kita.net)

우리나라 수출수산물의 수출지에서의 주요 경쟁국가로는 중국이 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전 품목에서 중국의 저가 수산물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인이 투자하는 공장이 중국에 다수 진출하여 중국산 제품이 기술력이나 품질면에서도 상당 수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국 다음으로는 일본제품과의 경쟁관계에 있다는 의견이 9%를 차지하였고, 베트남과 칠레제품과도 경쟁한다는 의견이 각각 4%, 3%를 차지하였다.

〈그림 2-3〉 수출수산물의 주요 경쟁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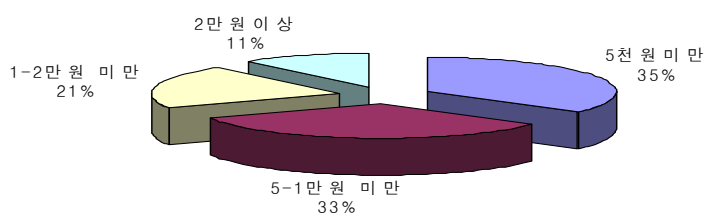


## 2) 주요 수출수산물의 물류현황

### (1) 수산물 수출기업의 일반현황

수출기업의 수출단가를 살펴보면, 품목의 수출단가가 5천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5천~1만원 미만인 경우도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단가가 kg당 1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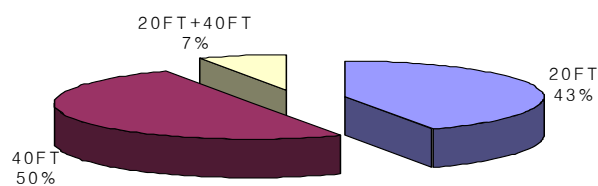
〈그림 2-4〉 수출기업의 kg당 수출단가



수출기업의 컨테이너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40ft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FT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출물량 여하에 따라서 20ft와 40ft를 혼용하는 경우가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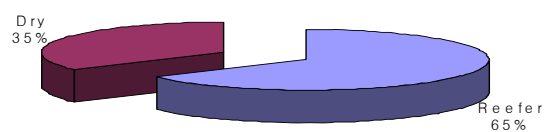
수산물은 수출시 해상 컨테이너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활어류의 수출시에는 활어차가 직접 선박에 실려 수출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며, 수조가 있는 배로 운송되는 경우 등도 있고, 참치 등은 bulk 상태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수출기업의 컨테이너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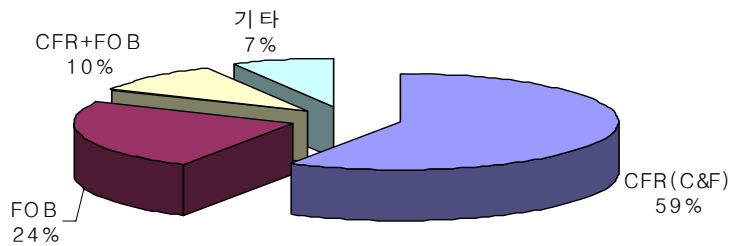
수출기업의 품목별 운반형태를 살펴보면, 수산물의 특성상 냉동냉장(reefer) 상태로 운반되는 경우가 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건조(dry) 상태로 운반되는 경우는 조미오징어 또는 마른김, 구운김 등과 같은 수산물 가공품 등의 경우로 전체의 약 35%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수출기업의 수출 운반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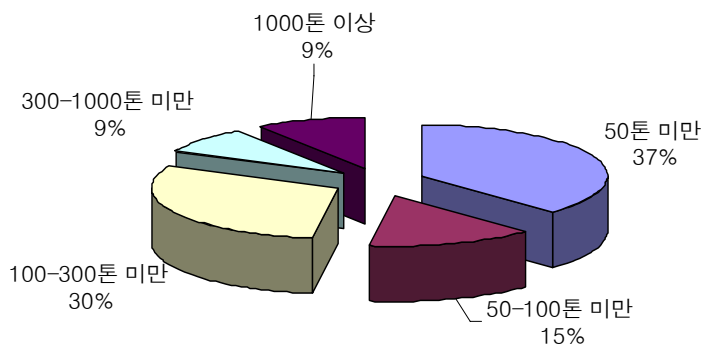
수출기업의 수출조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출상이 도착항까지 운임을 부담하는 CFR(CNF)로 계약하는 기업이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자가 선박에 적재하는 비용까지만 부담하는 FOB로 계약하는 기업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CFR과 FOB로 병행하여 계약하는 기업은 1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7〉 수출기업의 수출조건



수출기업의 수출물량을 살펴보면, 단일품목에 대한 연간 수출물량이 50톤 미만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0~300톤 미만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30%를 차지하였다. 단일품목을 1,000톤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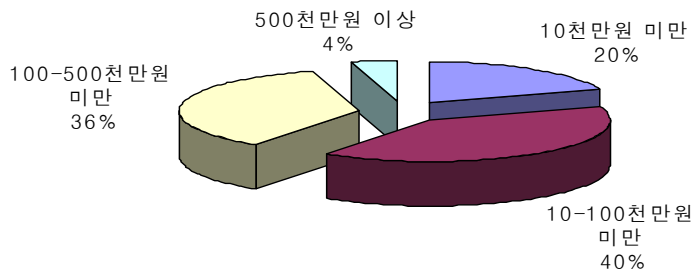
〈그림 2-8〉 수출기업의 연간 수출물량



주 : 연간 수출물량은 기업의 품목별 수출물량임

수출기업의 연간 수출금액을 살펴보면, 단일품목에 대한 연간 수출금액이 10~100천만 원인 경우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연간 수출금액이 100~500천만 원인 경우가 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품목을 1억원 이하로 수출하는 기업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수출기업의 연간 수출금액



주 : 연간 수출기업은 기업의 품목별 수출금액임

## (2) 품목별 수출형태 및 조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수산물물은 주로 해상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일본, 미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제품별로 수출물류의 행태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치는 선상에서 bulk 상태로 냉동운반선에 적재하거나 40ft 컨테이너에 냉동 화물(reefer) 상태로 운반되어 거의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주로 수출상이 도착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CNF(CFR)<sup>15)</sup>조건 또는 수출하는 사람이 선박에 적재하는 비용까지만 부담하는 FOB<sup>16)</sup>조건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 마른김, 조미김, 구운김의 형태로 수출되며, 주로 20ft 이하의 해상 컨테이너에 의해 건조상태(dry)로 수출되며, 수출조건은 CNF(CFR) 조건이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5) Cost & Freight

16) Free on Board

굴은 냉동굴, 통조림, 생굴 등의 형태로 수출되며, 통조림은 주로 20ft 이하의 컨테이너에 건조형태(dry)로 수출되고, 냉동굴은 주로 40ft의 컨테이너에 냉동냉장(reefer) 상태로 운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굴 수출시 대부분의 계약조건은 CNF(CFR)인 것으로 나타났다.

넙치는 우리나라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활어상태로 전량 수출되고 있으며, 일본으로 수출되는 활넙치의 경우에는 활어수송차가 일본행 선박에 직접 타고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미국, 캐나다 등지로 수출되는 활어의 경우에는 항공(CBM)으로 수출된다. 넙치 생산업체들은 CNF, FOB, TT<sup>17)</sup>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출조건으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는 주로 냉동오징어 또는 조미오징어의 형태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일본, 미국으로 수출되는 조미오징어는 주로 20ft 해상컨테이너에 건조상태(dry)로 운송되며, 중국으로 많이 수출되는 냉동오징어는 40ft 해상컨테이너에 의해 냉동상태(reefer)로 운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양에서 생산되는 오징어는 상당부분 뉴질랜드 등 원양어선의 현지조업 시 뉴질랜드 현지의 도매상에게 bulk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도 많았다. 오징어 수출시 대부분의 계약조건은 FOB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붕장어는 주로 활선어 형태로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은 주로 20ft 해상컨테이너를 이용하거나 냉동차를 선박에 실어서 운송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붕장어 수출시 대부분의 수출조건은 FOB인 것으로 나타났다.

돔은 주로 건조하여 자숙한 찢돔의 형태로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량에 따라서 20~40ft 해상컨테이너를 이용하여 건조상태(dry)로 수출되며, 돔 수출시 대부분의 수출조건은 CNF(CFR)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역은 건조, 염장, 냉동한 것 등 다양한 형태로 일본 등지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냉동미역귀, 산모용미역, 카트미역 등으로 수출상품은 더욱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역 수출시 대부분의 수출조건은 CNF(CFR)인 것으로 나타났다.

---

17) 현금거래 방식.

바지락은 활어 및 신선냉장 상태로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물량에 따라서 20~40ft 해상컨테이너 또는 bulk 상태로 냉동운반선을 이용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락 수출시 대부분의 수출조건은 CNF(CFR)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복은 완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어상태로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주로 bulk 상태로 수조가 있는 선박을 통해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복 수출시 수출조건은 상황에 따라서 CNF 또는 FOB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

주요 품목별 수출형태 및 조건

품 목	상품형태	운반형태	컨테이너규격	수출조건	수출국
참치	냉동	bulk	40ft 또는 자체운반선	CNF(CFR)	일본
김	마른김, 조미김, 구운김	dry	20ft	CNF(CFR)	일본
굴	통조림	dry	20ft	CNF(CFR)	미국, 일본
	냉동굴, 생굴	reefer	40ft		
넙치	활넙치	reefer	활어차	CNF, FOB, TT	일본, 미국, 캐나다
			항공(CBM)		
오징어	냉동오징어	reefer	40ft	FOB	일본, 미국, 중국, 뉴질랜드
	조미오징어	dry	20ft		
붕장어	활선어	reefer	20ft	FOB	일본
돔	찐돔(자숙)	dry	20 ~ 40ft	CNF(CFR)	일본
미역	건조, 염장	dry	20 ~ 40ft	CNF(CFR)	일본
	냉동	reefer	20 ~ 40ft		
바지락	활어	bulk	냉동운반선	CNF(CFR)	일본
	신선냉장	reefer	20 ~ 40ft		
전복	활어	bulk	수조선박	CNF, FOB	일본

주 : 수출형태 및 조건에 관한 결과는 회사마다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현재 설문결과 품목별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 및 계약조건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  
 자료 :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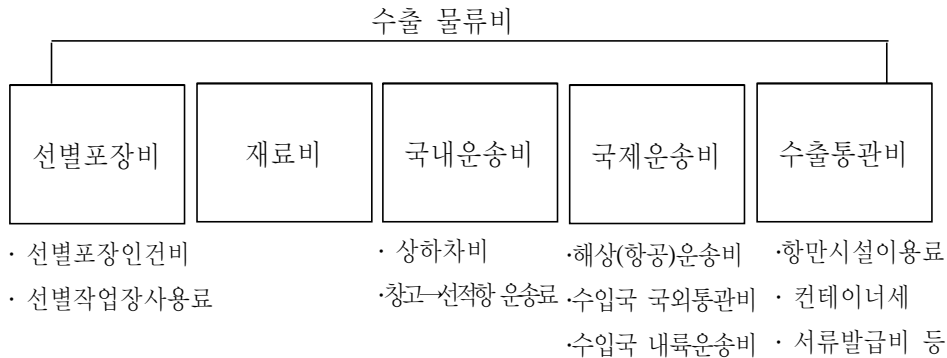
### (3) 수출수산물의 물류비 구성 및 현황

수산물의 수출물류비는 선별포장비, 포장재료비, 국내운송비, 국제운송비, 수출통관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별포장비는 선별포장

시의 인건비와 선별작업장 사용료를 포함하고, 국내운송비에는 창고의 상차비와 선적항에서의 하차비가 포함된다. 특히 물류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운송비는 해상(항공)운송비와 수입국의 국외통관비, 수입국 내륙운송비가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수출통관비에는 항만시설 이용료, 컨테이너세, 서류발급비, 수출통관수수료, 터미널화물 취급수수료, LCL화물 작업료 등이 포함된다.

〈그림 2-10〉

## 수출물류비의 범위



69개 업체의 수출물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수출수산물의 평균 수출단가는 10,661원/kg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수출단가 대비 물류비는 12.3%로 수산물 1kg의 수출단가에는 물류비용이 1,299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류, 패류, 해조류의 수출단가 대비 물류비 현황과 각 단계별 물류비 실태를 살펴보면, 해조류의 단가대비 물류비가 13.6%로 가장 부담이 크게 나타났으며, 패류와 어류는 각각 11.4%, 10.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kg당 물류비는 어류의 경우 768원, 패류가 1,052원, 해조류가 1,874원으로 나타났다.

〈표 2-22〉

## 전체 수출수산물의 수출단가 및 물류비 비중

(단위: 원/kg, %)

구 분	평균 수출단가	평균 물류비중	평균 물류비
어 류	7,100	10.8	768
패 류	9,230	11.4	1,052
해 조 류	13,743	13.6	1,874
기 타	8,463	13.4	1,136
전 체	10,661	12.2	1,299

자료 : 설문조사 결과



수출물류비를 선별포장비, 포장재료비, 국내운송비, 국제운송비, 수출통관료로 나누어 보면, 전체적으로 국제운송비의 비중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포장재료비 23.2%, 선별포장비 21.0%, 국내운송비 18.1%, 수출통관비 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어류의 경우에는 수출시에 국제운송비가 전체의 51.9%를 차지하여 패류 및 해조류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패류의 경우에는 국내운송비가 20.4%를 차지하여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조류의 경우에는 선별포장비가 29.2%로 타 품목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선별포장비와 포장재료비를 합하면 수출물류비의 52.5%를 차지하여 수출물류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 새우 등으로 구성된 기타품목은 포장재료비가 2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운송비는 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수출수산물의 단계별 물류비 비중

(단위: 원, %)

	선별포장비	포장재료비	국내운송비	국제운송비	수출통관비	합 계
어류	47 (6.1)	99 (12.9)	143 (18.6)	399 (51.9)	81 (10.6)	768 (100.0)
패류	180 (17.1)	251 (23.9)	214 (20.4)	349 (33.2)	57 (5.5)	1,052 (100.0)
해조류	547 (29.2)	438 (23.3)	294 (15.7)	432 (23.0)	163 (8.7)	1,874 (100.0)
기타	287 (25.3)	327 (28.8)	204 (18.0)	266 (23.5)	52 (4.6)	1,136 (100.0)
전체	273 (21.0)	302 (23.2)	236 (18.1)	398 (30.6)	91 (7.0)	1,299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수출수산물의 물류비 중 선별비는 선별을 위한 인건비와 작업장 사용료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별작업장 사용료의 비중은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어류의 선별비 중 인건비의 비중이 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 품종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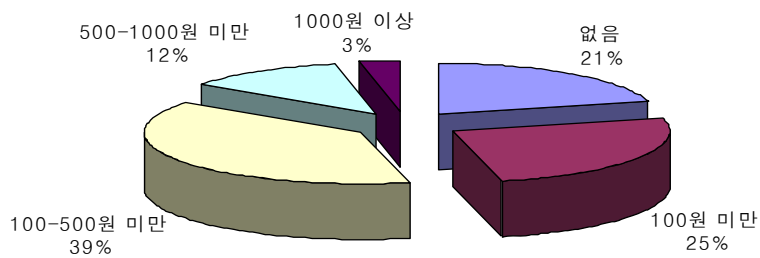
〈표 2-24〉 수출수산물의 물류비 중 선별비의 구성 및 비중 (단위: %)

	인건비 비중	선별작업장 사용료
어류	92.0	8.0
패류	85.6	14.4
해조류	83.9	16.1
기타	82.5	17.5
전체	85.0	15.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수출수산물의 kg당 포장재료비는 100~500원 미만이 전체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0원 미만이 전체의 25%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수산물의 특성상 활어 또는 냉동품이 포장 없이 수출되는 경우도 21%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수출수산물의 kg당 포장재료비



수출수산물의 물류비 중 국내운송비에는 창고 상차비와 선적항 하차비를 포함한 상하차비와 창고에서 선적항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다. 전체적으로 상하차비의 비중은 26.8%이고, 운송비의 비중은 7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 수출수산물의 물류비 중 국내운송비의 구성 및 비중 (단위: %)

	상하차비(창고 상차비+선적항 하차비)	운송비(창고에서 선적항)
어류	25.8	74.3
패류	33.2	66.8
해조류	20.5	79.5
기타	27.4	72.6
전체	26.8	73.2

자료 : 설문조사 결과

수출수산물의 국제운송비는 해상(항공)운송비, 수입국 국외통관비 비중, 수입 국내육운송비로 구성된다. 전체적으로 해상(항공)운송비의 비중은 92.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입국 국외통관비의 비중은 4.2%, 수입국내육운송비는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와 패류의 경우에는 수입국 국외통관비의 비중이 타 품종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표 2-26〉 수출수산물의 물류비 중 국제운송비의 구성 및 비중 (단위: %)

	해상(항공)운송비	수입국 국외통관비 비중	수입국내육운송비 비중
어류	90.0	7.9	2.1
패류	90.8	7.1	2.1
해조류	93.5	1.6	4.9
기타	96.4	1.7	1.9
전체	92.9	4.2	3.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수출수산물의 수출통관비는 항만시설이용료, 컨테이너세, 서류발급비, 수출통관수수료, 터미널화물취급수수료, LCL화물작업료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적으로 수출통관비 중 수출통관수수료와 서류발급비가 각각 34.2%와 2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류의 경우에는 서류발급비가 45.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패류의 경우에는 수출통관 수수료가 54.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해조류의 경우에는 터미널 화물취급수수료가 29.7%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의 경우에도 터미널 화물취급수수료가 51.4%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2-27〉 수출수산물의 물류비 중 수출통관비의 구성 및 비중 (단위: %)

	항만시설 이용료	컨테이너세	서류발급비	수출통관 수수료	터미널화물 취급수수료	LCL화물 작업료
어류	2.9	1.1	45.4	26.8	23.8	0.0
패류	0.3	2.8	24.8	54.2	17.5	0.5
해조류	11.2	11.8	13.0	28.7	29.7	5.5
기타	8.3	5.8	13.8	20.7	51.4	0.0
전체	5.9	5.9	22.2	34.2	30.0	1.8

자료 : 설문조사 결과

각 품목별 수출수산물의 수출단가를 살펴보면, 2006년 기준으로 전복이 23,341원/kg으로 가장 높았으며, 미역 14,120원/kg, 넙치 12,914원/kg, 김 10,048원/kg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로 해조류의 kg당 수출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품목별 수출단가 대비 물류비의 비중은 톳이 17%로 가장 높았으며, 김이 16%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그러나 미역과 바지락은 수출단가 대비 물류비가 각각 8%, 9%에 불과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kg당 평균물류비가 가장 높은 품목은 전복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김, 톳, 넙치가 각각 1,595원/kg, 1,421원/kg, 1,248원/kg으로 조사되었다.

〈표 2-28〉 수출수산물의 각 품목별 수출단가 및 물류비 비중 (단위: 원/kg, %)

구 분	평균 수출단가	수출단가 대비 물류 비중	평균 물류비
참치	2,247	11	250
김	10,048	16	1,595
굴	5,167	15	787
넙치	12,914	10	1,248
오징어	6,411	11	714
붕장어	8,650	13	1,125
돔	8,560	17	1,421
미역	14,120	8	1,158
바지락	4,053	9	365
전복	25,341	13	3,231

주 : 수출단가 및 물류비중은 2006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자료 : 설문조사 결과

수출수산물의 각 품목별·단계별 수출단가를 살펴보면, 참치의 경우에는 kg당 물류비용 중 국제운송비가 91.6%를 차지하고 있고, 선별포장비를 제외한 타 단계에서는 거의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 경우에는 포장재료비의 비중이 34.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운송비가 2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의 경우에는 국제운송비가 44.9%로 굴의 수출물류비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포장재료비가 2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넙치의 경우에는 국제운송비가 51.1%로 수출물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활어상태로 운반차량이 운반선에 실려서 가는 형태이므로 포장재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 특징 때문이다. 그러나 타 품목에 비해 국내운송비가 41.3%를 차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넙치의 주요 산지가 제주도이지만 제주도에서 주요 수출지인 일본으로 가는 선박이 없어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선박에 갈아타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국내운송비가 많이 드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오징어의 경우에는 수출물류비 중 포장재료비

가 34.1%로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미오징어 등을 가공 포장하여 수출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징어는 선별포장비 비중도 25.2%로 높게 나타났다. 봉장어는 포장재료비가 4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톳의 경우에는 선별포장비가 61.2%를 차지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타 품종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지락과 전복은 국내운송비가 각각 27.0%, 33.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 수출수산물의 각 품목별·단계별 수출단가

	선별포장비	포장재료비	국내운송비	국제운송비	수출통관비	합계
참치	5 (1.8)	- (0.0)	16 (6.5)	229 (91.6)	0.3 (0.1)	2,247 (100.0)
김	191 (12.0)	552 (34.6)	290 (18.2)	434 (27.2)	126 (7.9)	10,048 (100.0)
굴	139 (17.7)	220 (28.0)	54 (6.9)	353 (44.9)	20 (2.5)	5,167 (100.0)
넙치	72 (5.8)	- (0.0)	515 (41.3)	638 (51.1)	22 (1.8)	12,914 (100.0)
오징어	180 (25.2)	243 (34.1)	113 (15.8)	150 (21.0)	27 (3.8)	6,411 (100.0)
봉장어	171 (15.2)	500 (44.4)	71 (6.3)	163 (14.5)	221 (19.6)	8,650 (100.0)
톳	870 (61.2)	193 (13.6)	82 (5.8)	117 (8.2)	159 (11.2)	8,560 (100.0)
미역	252 (21.8)	170 (14.7)	266 (23.0)	386 (33.3)	83 (7.2)	14,120 (100.0)
바지락	69 (18.9)	80 (21.9)	99 (27.0)	97 (26.7)	20 (5.5)	4,053 (100.0)
전복	333 (10.3)	394 (12.2)	1,079 (33.4)	1,089 (33.7)	333 (10.3)	25,341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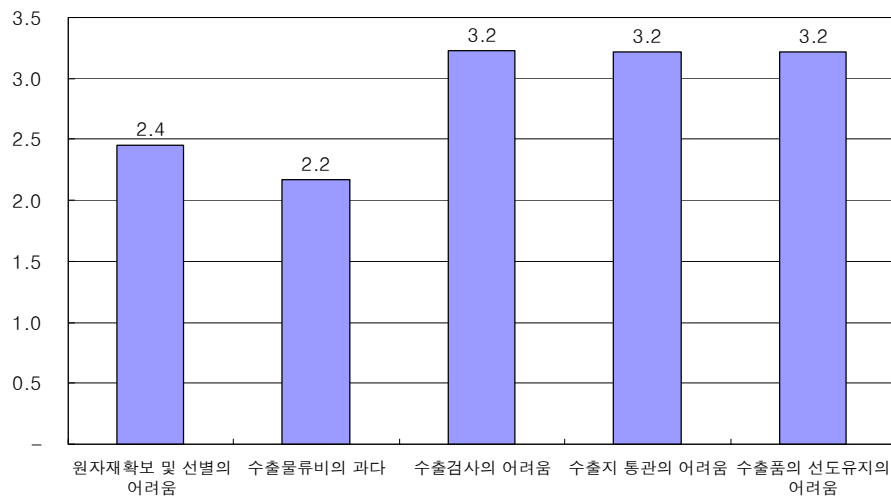
### 3) 수산물 수출물류의 특징 및 문제점

#### (1) 수출물류비의 과다

수산물 수출물류비는 수출단가 대비 1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로 인해 수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물 수출시의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도 설문 결과 수출물류비 과다가 가장 큰 애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산물의 특성상 생산에서 가공, 수출단계까지 선도유지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kg당 단가가 낮은 반면, 신선냉장 또는 활어상태로 수출되어야 하므로 운송, 보관에 드는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수산물 수출시의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도 결과



주 : 어려움이 클수록 1에 가깝고, 어려움이 없으면 5에 가까움

#### (2) 원자재 확보 및 선별의 어려움

수산물은 특성상 생산에 계절성이 있어 지속적인 원료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산지가 분산되어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산지에서 조달된 물량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료 수매시 가격변동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품목별 원자재 확보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인식도 점수<sup>18)</sup>가 2.4점으로 많은 기업들이 수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톳의 경우에는 1.7점으로 수출 원자재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출회사에 조달하는 톳을 생산하는 양식업자들이 선별해서 조달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갈등관계에 있어서 이로 인해 재선별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량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물량이 적을 때는 40ft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해 물량확보 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하고 있다.

〈표 2-30〉 품목별 원자재 확보 및 선별에 대한 인식도 결과

품목	인식도 점수
참치	3.5
김	2.2
굴	2.5
넙치	4.0
오징어	2.4
붕장어	4.0
톳	1.7
미역	2.2
바지락	2.0
전복	2.3
전체	2.4

주 : 원자재 확보가 어려우면 1에 가깝고, 원자재 확보가 용이하면 5에 가까움

### (3) 수출품 선도유지의 어려움

수산물의 특성상 수출품의 선도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출품 중에는 활어상태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 수출통관 및 해상운송 중에 폐사하거나 선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수출업자들이 크게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수출형태인 냉동수산물의 경우 출고시 냉동상태로 운

18) 인식도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점수화하여 산정하고자 함. 1점: 매우 어려움, 2점: 약간 어려움, 3점: 보통임, 4점: 어려움이 없는 편임, 5점: 전혀 어려움이 없음.



반되어야 하고, 냉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로 인한 부대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수출 시에는 20ft 냉동컨테이너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수출시 이와 같은 부과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품목별 수출품의 선도유지에 대한 인식도 설문결과, 전반적으로 선도유지로 인해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활어 상태로 판매되는 전복과 바지락의 경우에는 인식도 점수가 각각 2.7점과 2.4점으로 선도유지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복이나 바지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넙치의 경우에도 활어상태로 수출이 되지만, 넙치의 경우에는 활어차가 직접 운반선에 실려 수출되므로 활어의 상태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선도문제를 큰 애로요인으로 보지 않았다.

〈표 2-31〉 품목별 수출품 선도유지에 대한 인식도 결과

품목	인식도 점수
참치	3.5
김	3.3
굴	3.3
넙치	4.0
오징어	3.4
붕장어	3.5
돔	4.0
미역	3.0
바지락	2.4
전복	2.7
전체	3.2

주 : 선도유지로 인한 애로요인이 크면 1에 가깝고, 작으면 5에 가까움

#### (4) 수출품 통관의 어려움

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식품에 대한 검역 및 통관이 철저하므로 이로 인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 이 기간 중 수출품의 폐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이후 국내에서의 통관시 활어 등의 수출품에 대한 검역시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났으며, 항생제에 대한 검사기준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일본의 요구조건에 따라 기존의 8가지 검사

에서 27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함에 따라 이로 인한 소요시간이 늘어나서 수출업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수출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검사항목이 늘었지만, 이에 대한 처리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수출품 검사항목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5) 기타 문제점

최근 해조류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의 품질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품질을 결정 짓는 이물질 선별기의 현대화가 필요하지만 해조류를 수출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최신 선별기를 구입하는 데 애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생문제와 관련하여 수출기업들은 수질검사, 선별 및 포장 인력의 건강검진을 포함한 위생검사, 자가품질검사 등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이 수출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수출업체들은 바이어의 수출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수출하는 소극적인 수출전략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방식으로 인해 수출국에서의 가격경쟁 및 품질비교 등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떨어지게 되고, 바이어의 상황에 따른 주문에 수출물량을 납기일 안에 맞추어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비도 없이 바이어에 의해 원하는 포장단위가 주문 시마다 달라지므로 이를 해결하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 4) 수출수산물 물류지원의 한계

수출수산물의 물류비 지원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의 Article 3(Prohibition) 수출보조금의 금지와 ANNEX I(Illustrative list of export subsidies)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물론 농업협정의 영향을 받는 농업의 경우에는 WTO 농업협정문 제9조 4항에 의해 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금(수출유통비용 및 운송비) 감축의무

가 면제되어 1996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업분야에서도 개도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현재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출물류비와 같은 수출보조는 협상에서 타결될 이행 기간에 철폐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의 수출보조금은 무역왜곡을 야기시키는 대표적인 보조금으로서 분야를 막론하고 금지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물론 WTO 규정상에도 일정 부분의 수출보조 허용가능성을 WTO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PartIV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규정을 통해 물품가격의 1%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최소허용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 동향을 살펴볼 때, WTO 협정상에 명시된 허용보조금 규정이 거의 사문화되어 기능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수출물류비의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지원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고, 수출물류의 효율화를 통하여 물류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제3장 국내외의 농수산물 수출물류지원 관련 사례

### 1. 수출지원제도 개요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농업의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과 동시에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농산물 수출업체들이 영세하고, 생산 및 판로개척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정부, 협회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수출지원을 받고 있다.

수출지원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수출증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또는 개인, 특정 산업에 제공하는 각종 조치나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수출상의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 포함된다.<sup>19)</sup>

정부의 수출지원은 보조금이나 소득세 감면과 같은 직접지원과 수출시장의 개척,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제반 조치와 같은 간접지원<sup>20)</sup>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지원은 특정 분야의 수출을 인위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시장왜곡을 발생시켜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지 또는 감축대상으로 규제되는 반면, 간접지원은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수출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대부분 간접지원조치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지원도 그 성격이 애매모호하여 국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이나 국내보조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발생하여 국제적인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서는 수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조금을 금지

---

19) 수출지원에 대한 개념은 그 범위에 따라 “기업의 수출마케팅 촉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라는 협의의 개념과 “수출기업, 수출산업, 또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수출활동을 실제로 촉진하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정책 수단”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될 수도 있음(어명근 외, 「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20) 예를 들어 수출품의 해외홍보나 광고 등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거나 무역박람회나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 정보수집 지원과 수입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품질관리 지원 등이 해당됨.

보조금<sup>21)</sup>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수출실적에 따라 정부가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접 보조금,

둘째, 수출장려금을 포함하는 외화보유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관행,

셋째, 수출품 선적과 관련하여 국내 선적분에 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국내수송 및 운임,

넷째,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품, 국내제품, 서비스를 국내 소비용 생산에 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

다섯째, 수출과 관련하여 산업 또는 기업이 지불한 또는 지불해야 할 직접세, 사회보장부담금의 완전 또는 부분적면 면제, 경감, 유예,

여섯째, 직접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국내소비를 위한 생산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이상의 특별공제 허용,

일곱째, 수출품의 생산·유통 시 내수용품 이상의 간접세 면제, 환급,

여덟째,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 서비스에 대한 내수용품 이상의 누적간접세 면제, 환급, 유예,

아홉째,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에 부과되는 것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급,

열째, 정부가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계획, 수출품의 비용 증가에 대비한 보험 또는 보증계획, 환리스크 보증계획 등의 장기적인 운영비용 또는 손실을 보전하는데 우대금리를 제공,

열한째,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조달비용보다 낮은 금리의 수출신용공여, 수출자 또는 금융기관 부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수출신용조건의 제공,

열두째, 기타 상품수출 증가목적의 제반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원 등과 같다.

반면, 허용보조금은 특정성<sup>22)</sup>이 없는 보조금이나 또는 특정성이 있어도 동 협정의 제8조 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첫째,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둘째, 지역개발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회원국 영토 내의 낙후지역에 제공되는 지원, 셋째, 기업에 제약과 재정적 부

21) 금지보조금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과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22) 특정성(Specificity)은 보조금에 대한 접근이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제한된 경우나 법률상 특정성이 없지만 사실상 특정적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답을 초래하는 법·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새로운 환경요건에 기존시설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이 해당된다.

〈표 3-1〉 수출지원 관련 허용보조금의 유형

구 분	주요 내용
시장조사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전시회 지원	국제무역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에 대한 자금 지원
수출진흥사무소	자국 수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해외사무소 지원
연구지원	수출가능성이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정부의 연구지원
수출신용	수출입은행과 같이 수출금융 및 보험을 담당하는 기구에 의한 금융지원(OECD 공적수출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범위)
수출보험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위험에 대한 보험제공
간접세 환급	수입관세, 판매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환불 (단,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환급은 불허)
수출자유지역	재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한 물품의 가공을 위한 지역 운영
무역진흥기관	자국의 수출입진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의 시장개척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자료 : 어명근 외, 「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지원 관련 보조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3-1>과 같으며, 주로 수출시장 조사 및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연구지원, 수출신용 및 수출보험, 지방정부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수출 보조금 규정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WTO 농업협정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WTO 농업협정에서는 회원국의 양허목록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는 한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재된 경우에도 지급금액 및 물량 모두에 대한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감축대상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3)</sup>

첫째,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기업, 산업, 농업 생산자(조합), 협회 또는 유통위원회에 대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지급을 포함한 직접보조금의 제공,

둘째, 국내시장의 구매자에게 동종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의해 농산물의 비상업적 재고의 수출목적의 판매 또는 처분,

셋째, 관련 농산물 또는 수출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지불을 포함하여, 공공회계의 부담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의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불,

넷째, 취급, 등급향상과 다른 가공비용 및 국제운송 비용을 포함하여, 농산물 수출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의 제공(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한 수출증진 및 자문서비스는 제외),

다섯째, 국내 수송물량에 비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거나 의무화한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 운송비,

여섯째, 수출상품에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와 같다.

그러나 동 협정문의 제9조 4항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넷째(수출유통비용 절감)와 다섯째(수출품에 대한 운송비 지원)에 대한 감축면제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보조금이 감축약속을 위회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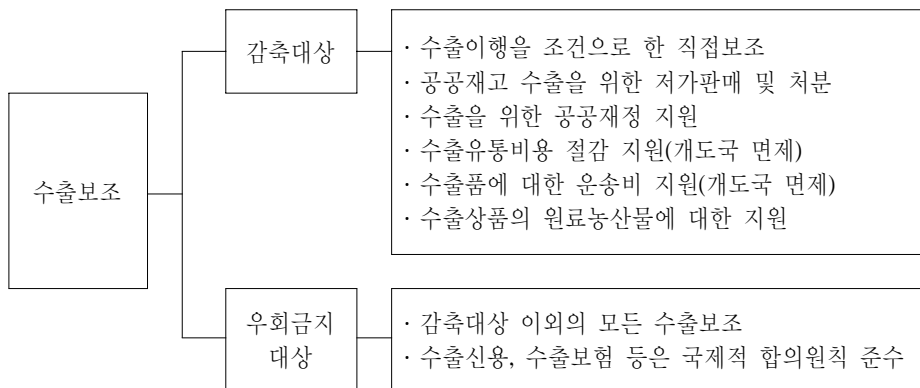
이에 따라 시장정보 제공 및 수출알선,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과 같은 일반적 수출촉진 활동 등은 허용보조로 간주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유형의 수출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

23) WTO 농업협정문 제9조 수출보조 의무(Export Subsidy Commitments) 제1항.

〈그림 3-1〉

## WTO 농업협정상 수출보조의 분류체계



## 2. 우리나라의 농림축산물 수출지원 사례

수출지원은 수출기업, 수출산업 또는 국민경제 수준에서 수출활동을 실제로 촉진하거나 잠재적으로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농산물 수출지원 정책은 수출생산조직과 수출업체가 실제 농산물 수출에서 경험하는 수출애로 요인을 타개하는 제 조치들을 의미한다.<sup>24)</sup>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 지자체, 협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수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각 부처 및 산하 수출진흥기구인 농수산물유통공사, KOTRA 등에서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에서도 도 및 시·군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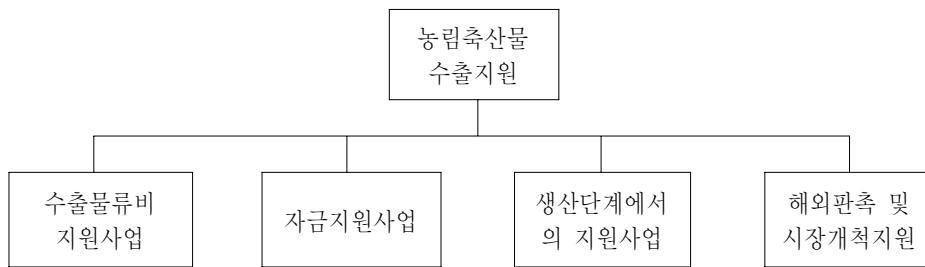
농림축산물의 수출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수출물류비, 환변동보험 가입 등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사업, 둘째, 우수 농산물 원료구매자금, 농산물 운영활성화 자금, 유망품목 시장개척자금, 우수 농산물 시설현대화자금 등의 자금지원사업, 셋째, 생산단계에서의 지원으로서 농식품에 대한 수출컨설팅,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넷째, 해외판촉 및 시장개척지원과 정보제공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24) 김병률, 「농산물 수출조직의 진단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그림 3-2〉

## 농림축산물의 주요 수출지원사업 구분



본 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수출지원 가운데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맞게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기타 수출지원사업은 개략적인 수준에서 실태를 파악하였다.

## 1)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1) 중앙정부의 지원사업

## ① 사업개요

농림부에서는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일환으로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농축산물의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농가 및 수출업체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물류비 지원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1항<sup>25)</sup>, 『WTO 농업협정』 제9조(수출보조 이행)에서의 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 허용, 『농업·농촌기본법』 제35조(농산물의 수출진흥)<sup>26)</sup>에서 지원근거를 찾을 수 있다.

본 사업의 추진체계 및 지원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관부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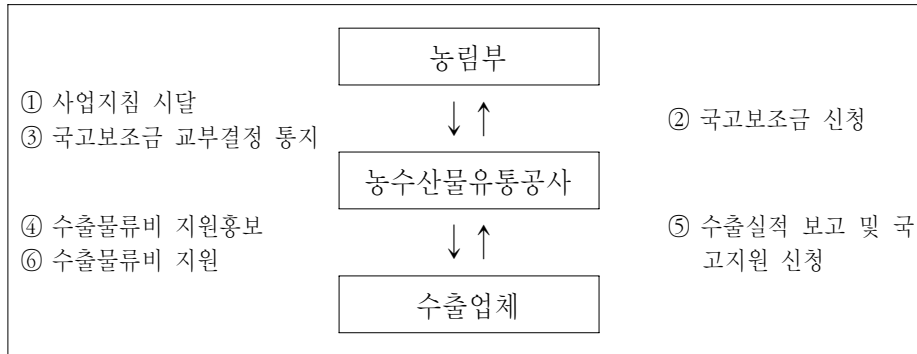
25)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등 협정이 허용하는 수출시장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26) 제35조(농산물의 수출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수출진흥과 우리 식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부에서 사업지침을 시달하면 사업 대행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농림부가 교부결정을 통지하게 된다. 이에 유통공사는 수출업체들에게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게 되며, 수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물류비를 지원한다.

〈그림 3-3〉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 농림부, 「2007년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

세부적인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홈페이지 및 각 지사·수출입조합 등을 통해 수출물류비 지원계획을 통보하게 된다. 그러면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요건(수출실적 등)을 유통공사의 각 관할지사에 확인 받은 후 유통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에 지원업체 등록을 하게 된다.<sup>27)</sup> 이러한 과정에서 각 관할지사는 물류비 지원지침에 의거 지원 대상 요건을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업체에 수출물류비 고객지원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한편, 지원신청업체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 기준 수출실적을 유통공사 고객지원시스템에 품목별 지원신청내용을 입력하고, 수출실적증빙서류를 유통공사 관할지사에 제출하게 된다. 단, 감귤류 및 유자 제품류를 제외한 신선 과실류는 예외적으로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도 수출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로는 수출실적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Copy본, B/L Copy

27)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면 고객지원시스템에 첫째, 업체현황으로서 업체명, 대표자, 임원,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시설현황 등, 둘째, 부류별 수출계획, 셋째, 품목별 수출동향 및 애로·건의사항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본) 각 1부, 계좌입금 요청서 및 인감증명서 1부, 기타 부류별로 수출실적 확인 및 지원에 필요한 서류이다.

이에 따라 유통공사 각 지사(수출입조합)의 담당자는 수출신고필증 등 지원신청 수출증빙서류의 원본을 대조 확인하고, 지원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온라인 신청내용과 수출실적증빙서류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유통공사 각 지사는 매월 15일까지 수출업체별·부류별·품목별 수출물류비 지원실적(인센티브 포함)을 유통공사 본사에 보고한다.

## ② 세부 지원내용

수출 농식품의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물류비용의 지원 대상 품목은 국내산 과실, 채소, 화훼, 김치, 인삼, 축산부류, 가공밥 등이며, 김치, 인삼, 유자제품, 즉석 및 가공밥 등의 가공제품은 주원료가 국내산인 경우에만 지원하되, 주원료<sup>28)</sup>의 일부를 외국산과 혼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3-2〉

부류별 지원대상 품목

구분		지원대상 품목
과실류		사과, 배, 단감, 복숭아, 포도, 감귤, 한라봉, 금귤(신선), 유자생과, 유자껍질, 유자차, 유자즙, 유자즙(기타), 참다래
화훼류		튤립, 백합, 다리아, 히아신스, 글라디올러스, 아이리스, 후리지아, 수선, 기타 구근, 난초, 카네이션, 구즈마니아, 안개초, 국화, 선인장, 양란, 기타 화초, 철쭉, 장미, 목단, 동백, 기타 절화
김치		제조김치, 냉동김치
축산물	돼지고기	냉장, 냉동, 열처리가공품(내장)
	닭고기	냉장, 냉동, 삼계탕,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조제처장
	오리고기	냉장(미절단), 냉장(절단), 냉동(미절단), 냉동(절단)

28) 여기서 주 원료는 인삼제품(인삼 및 인삼엑기스 등), 유자제품(생유자 및 유자과즙 등), 김치제품(배추 김치의 경우 배추, 무 등), 가공밥(쌀)과 같다.

## 부류별 지원대상 품목(계속)

구분		지원대상 품목
채소류	과채류	수박, 딸기, 오이, 밤호박(쥬키니, 애호박), 토마토, 가지, 멜론(참외)
	엽채류	양배추, 배추, 시금치, 상추, 미나리, 양상추
	근채류	무(당근, 고구마,) 감자
	견채류	건고사리, 건당근, 건무우, 건고추
	조미채류	풋고추, 파프리카(피망), 마늘, 양파, 생강, 대파, 쪽파, 고춧가루
	기타채소	부추, 우엉, 아욱, 토란, 연근, 마, 쑥갓, 근대, 달래, 냉동취나물, 두릅, 인겐마메, 고추냉이 등
	버섯류	팽이버섯, 양송이,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절임류	절임가지, 깻잎무침, 절임오이, 절임배추
인삼류	홍삼근	본삼, 미삼, 잡삼
	홍삼제품	홍삼분,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 홍삼분말(홍삼분,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은 제외), 홍삼엑스, 홍삼엑스분, 기타 홍삼액즙·엑스(홍삼정 및 홍삼정분 제외) 홍삼차, 기타 홍삼제품류, 홍삼의 것
	백삼근	본삼, 미삼, 잡삼
	백삼제품	수삼, 백삼분, 인삼타브렛 또는 캡슐, 기타백삼분, 인삼엑스, 인삼엑스분, 인삼액즙·엑스기타, 기타 인삼액즙·엑스, 인삼차, 기타 백삼제품류, 백삼의 것
	기타 인삼음료	인삼음료, 인삼주, 인삼잎 및 줄기, 인삼종자, 기타인삼(인삼근, 인삼분말, 인삼잎, 인삼줄기 및 인삼종자는 제외), 기타의 인삼
가공밥		즉석밥, 볶음밥, 덮밥, 비빔밥 등

자료 : 농림부, 「2007년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

지원대상 업체는 지원대상 품목의 수출실적이 있는 자 또는 물품공급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수출실적이 15만 달러(US\$) 이상인 업체이다. 단, 지원대상 품목의 해당부류의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수출실적이 10만 달러(US\$) 이상인 업체는 해당부류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수출실적의 확인은 판매 촉진비 지원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 기존의 지원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지원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신규로 지원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요건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물품공급자(생산농가, 제조자 등)는 판매 촉진비 지원에 대한 수출자의 동의서나 합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적정 집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지원업체에 자료제출 및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본물류비의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금액은 수출물량에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된다. 수출보조금 철폐 또는 감축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2007년 7월 1일부터 지원수준을 현행 표준물류비의 30%에서 25%로 감축하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2007년도 기본물류비 지원단가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지원단가(B)가 표준물류비의 25%(C)보다 많을 경우(<math>B &gt; C</math>)  : B와 C의 차액에 7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C에 가산하여 지급<math>[A=C+(B-C) \times 0.7]</math>  ⇒ (예) B가 200원, C가 150원 : 2007 지원단가(A)=<math>150+(200-150) \times 0.7 = 185</math>원</li> <li>○ 2006년 지원단가(B)가 표준물류비의 25%(C)보다 적을 경우(<math>B &lt; C</math>)  : B와 C의 차액에 5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C에 가산하여 지급<math>[A=C+(B-C) \times 0.5]</math>  ⇒ (예) B가 100원, C가 130원 : 2007 지원단가(A)=<math>130+(100-130) \times 0.5 = 115</math>원</li> </ul>

2007년의 지원단가는 2007년 7월 1일 이후의 선적분부터 적용(B/L 선적일 기준)하며, 기준국가 이외의 지역은 최단거리에 있는 기준국가(일본, 중국, 동남아, 미국, 유럽, 극동 러시아)의 지원단가를 적용한다.

산물형태로 수출한 경우는 수출물류비 소요내역을 증빙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액은 발생한 실 수출물류비의 25%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한도액의 경우, 수출건별 기본물류비 지원액은 수출금액(FOB)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부류에 대한 업체별 기본물류비의 연간 지원한도액은 해당부류의 연간 지원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업체별 기본물류비 지원총액이 5억 원을 초과 시에는 매 5억 원마다 지원금액의 2%씩 차감하여 지원하고 있다.<sup>29)</sup>

29) 지원비율은 5억원 이하(100%), 5~10억원(98%), 10~15억원(96%), 15~20억원(94%),... 와 같다.

〈표 3-3〉

## 수출국 국가군 분류

구 분	대 상 국 가
일 본	일본
중 국	중국, 몽고
동남아	홍콩, 대만,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피지, 네팔, 캄, 사이판 등
미 주	미국, 자메이카,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리남 등
유 럽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메룬, 아랍에미리트, 가봉, 우간다, 중앙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에디오피아, 알제리,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가나, 소말리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극동러시아	극동러시아(블라디보스톡 항구를 통한 수출)

자료 : 농림부, 「2007년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

한편, 기본물류비와는 별도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신시장개척, 수출유망 품목 항공운송, 원예전문생산단지, 수출농산물 공동대표 브랜드(Whimori)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신시장개척 인센티브의 경우,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2006년 11월 기간 중 대상 품목별 수출물량과 금액이 총 수출실적의 5% 미만이면서 단일품목 수출실적이 미화 10,000달러 이하인 국가에 미화 10,000달러 이상을 수출한 2개 이내 업체이다. 신시장개척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업체는 동일품목, 동일국가에 한해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200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신시장개척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업체는 2007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2005년, 2006년에 지원받은 업체는 수출물량과 금액이 총 수출실적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한 업체수와 관계없이 2007년에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해당 수출물량에 대해 표준물류비의 30%를 추가로 지원하며, 지원조건으로는 신시장개척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수출물량은 당해 국가에서 판매·소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수출유망품목 항공운송 인센티브의 경우, 지원대상은 철화 및 딸기를 일 본 이외의 지역에 항공 운송으로 수출한 경우이며, 지원기준은 해당 수출물량에 대해 표준물류비의 10%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 지원대상 품목 선정이 필 요한 경우 수출확대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로 선정 가능하다.

셋째, 원예전문 생산단지 인센티브의 경우, 지원대상은 정부지정 원예전문생산 단지의 해당품목을 수출한 업체이며, 표준물류비의 5~12%를 추가로 생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준으로는 최우수단지는 12%, 우수단지는 9%, 일반단지는 5%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넷째, 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Whimori) 인센티브의 경우, 지원기준은 해 당품목 수출물량에 대해 표준물류비의 10%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2가지 이상의 인센티브가 해당될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인센티브 지원액은 기본물류비 지원한도액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수급안정 등 정책적 수출전략품목은 필요시 별도로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물류비의 지원제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허위서류 제출 등<sup>30)</sup>, 원산지 위반 등<sup>31)</sup>, 수출단지 관련 위반<sup>32)</sup>은 해당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지 원제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령 등 위반<sup>33)</sup>, 수출농산물의 품질불량·덤핑수 출 등으로 인한 반송 등 수출질서 문란행위 등도 별도로 지원제한 조치가 가해

30) 수출물류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기 위하여 실제 수출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허위서류(신고필증, B/L 등) 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액을 수령한 경우(2년 제한), 수출유망품목개발지원사업 등 타 사업에서 지원한 실적 또는 정부비축물자를 수출용으로 공급하여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수출실적 등 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액을 수령한 경우(1년 제한), 수출품목,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 운송· 포장방법, 인센티브 적용 등 실제 수출내용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초 지원계획과 다르게 지원금을 수령 한 경우(6개월 제한) 등이 이에 해당된다.

31) 신선농산물 및 김치, 인삼, 유자제품 등 가공식품의 주원료가 국내산이 아니거나, 수입산 원료를 혼합 하여 수출하고 수출물류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1년 제한), 김치, 인삼캐릭터 관리요령에 의한 캐릭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업체의 제품 또는 캐릭터 미부착 수출실적에 대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6 개월 제한) 등이 이에 해당된다.

32) 정부지정수출단지 이외 지역의 수매품을 정부지정수출단지 수출실적으로 허위로 신청한 수출업체(6개 월 제한), 정부지정 수출단지 사업자 대표가 해당 수출단지 이외 생산·수출품에 대하여 수출품 구매확 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인센티브를 수령한 경우(6개월 제한) 등이 이에 해당된다.

33) 수출과정에서 관세법, 기타 수출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6개월 제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정당한 자료요구, 캐릭터 사후관리 등 지침수행을 위한 자료 열람 및 제출요구에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경고), 채소류 안전성 관리지침 등 안전성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외 관련기관에 적발된 자(1년 제한), 식품위생 관련규정을 위반하 여 국내·외 관련기관에 적발된 자(경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진다.

한편, 제재대상은 법인 및 대표자이며, 제재범위는 1년 이하인 경우 해당 품목,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부류에 대하여 지원을 금지한다. 그리고 제재기간 중 동일한 제재를 받는 경우 차상위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2가지 이상의 제재내용 중복 시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필요시 수출물류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차상위 제재기준으로 가중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품목별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외화획득용 공급 중 미군납, 기내용, 면세점 공급과 무환(無換)으로 시험, 견본 수출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정부비축물자(사과, 배, 마늘, 양파 등)에 대한 수출 실적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농림부의 별도 지침 시달시 지원은 가능하다. 셋째, 판매촉진비 지원금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하되, 지원대상 중량은 kg 단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넷째, 판매촉진비 신청 시 수출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수출신고필증에 대해서는 전면에 소정의 ‘지원필’ 고무인을 날인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있다. 다섯째, 수출신고필증과 B/L상의 중량이 상이할 경우, 해상운송은 수출신고필증상의 중량을 적용하고, 항공운송은 항공운송장(Air Way Bill)상 Chargeable Weight를 적용한다. 여섯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유망품목개발사업’ 선정품목의 사업정산물량은 판매촉진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단, 생산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원예전문생산단지 인센티브는 지원 가능하다. 일곱째, 정부비축물자를 수출용으로 공급받은 수출실적은 판매촉진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여덟째, 사업주관기관 또는 사업담당기관은 지원대상 수출실적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근거자료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조사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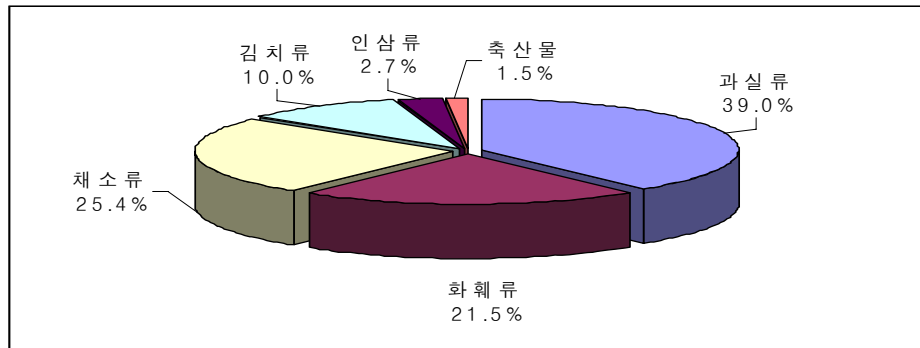
### ③ 수출물류비 지원현황

지금까지 농축산물의 수출물류비에 지원된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부터 2006년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지원된 농축산물의 수출물류비 지원 금액은 약 2천 1백억 원 수준이며, 이 중 과실류가 전체 금액의 39.0%인 822억 원



으로 가장 지원규모가 컸다. 다음으로 채소류가 25.4%인 534억 원, 화훼류가 21.5%인 452억 원, 김치류가 10.0%인 210억 원 등의 순으로 지원규모가 컸다.

〈그림 3-4〉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물류비 지원 비중



〈표 3-4〉 농축산물의 연도별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분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합계
1990	453	-	-	-	-	-	453
1991	679	-	-	-	-	-	679
1992	763	-	-	-	-	-	763
1993	535	-	-	-	-	-	535
1994	1,112	35	-	-	-	-	1,147
1995	1,408	145	-	-	-	-	1,553
1996	2,420	330	268	196	-	-	3,214
1997	2,940	413	893	1,161	-	-	5,407
1998	3,379	2,345	3,080	1,487	-	-	10,291
1999	3,049	4,355	4,616	2,093	-	764	14,877
2000	5,204	5,330	5,575	1,996	-	383	18,488
2001	6,883	6,914	8,582	1,768	724	158	25,029
2002	11,828	4,556	6,523	2,034	1,033	136	26,110
2003	10,243	4,788	5,814	2,475	1,028	319	24,667
2004	9,016	7,186	4,197	2,529	1,148	194	24,270
2005	10,851	4,132	7,333	2,666	922	362	26,266
2006	11,431	4,645	6,565	2,565	853	762	26,821
합계	82,194	45,174	53,446	20,970	5,708	3,078	210,570
'00~'06년 연평균증감률	14.0	-2.3	2.8	4.3	3.3	12.1	6.4

주 : 인삼류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1~2006년 기간 동안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내부자료

농축산물의 수출물류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실류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의 연평균 증감률은 14.0%로 가장 높았다. 동 기간 동안 화훼류는 2.3% 감소한 반면, 채소류는 2.8%, 김치류는 4.3%, 인삼류('01~'06)는 3.3%, 축산물은 12.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실적은 연 평균 6.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지자체의 지원사업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내 농축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촉진자금’ 명목으로 수출실적에 따라 농가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예산 및 수출확대에 대한 정책의지에 따라 지원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출물류비 지원절차는 생산 농가의 경우 분기별로 수출단지 농가들이 시·군에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시·군에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도에서 2차 서류검토를 한 후 지원하고 있다. 수출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분기별로 도에 직접 신청하면 도에서 서류심사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sup>34)</sup>

2007년도의 지자체별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시·군별 수출물류비 지원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자료수집 등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여기서는 도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수출물류비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품목별 수출교육 및 컨설팅, 수출 농식품 해외홍보물 제작, 국제박람회(식품·화훼) 참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컨설팅, 농식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 우수 농식품 해외 시장성 조사, 수출보험료 지원, 국제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의 농산물 수출목표는 2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도 수출목표보다 30% 높게 설정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실로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수출촉진장려비’의 명목으로 관내 200개 농가에 연간 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수취금액을 기준으로 농가는 2%, 수출업체는 1%의

34) 김병률 외, 「농산물 수출조직의 진단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파프리카, 여름딸기 수출전문단지 조성, 수출 농장제도 운영, 수출 백합종구 구입지원, 수출 신선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의 농산물 수출목표는 2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도 수출목표 대비 6.3%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충청북도는 가공하지 않은 도내산 신선농림수산물(조경수 제외)을 생산·수출하는 농가,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수출실적에 따라 농가수취가격의 10~13%를 차등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10~12%(농가 7%, 수출업체 3%)이며, 신규 수출 품목 및 국가의 경우 13%(농가 8%, 수출업체 5%)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의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총 사업비는 6억 5천만 원(도비 2억원, 시·군비 4.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전체 수출목표는 1억 9천만 달러로 전년 실적대비 11%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충청남도는 2007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 범위를 기존의 과실류, 엽·과채류, 화훼류, 버섯류 등 신선농산물에 더하여 김치, 김, 젓갈, 백삼 등과 같은 단순 가공식품으로 확대하여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의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총 사업비는 3,224백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전체 수출목표는 3억 달러로 계획하였다. 이 외에도 농식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수출용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 해외시장 개척사업 및 국제박람회 지원, 수출업체 서포터즈제 실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채소류, 화훼류, 과일류 등의 신선농산물과 김치를 생산하는 수출 농가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도의 수출물류비 지원규모는 1,644백만원(도비 822, 시·군비 822)을 책정하였다. 지원기준은 수출농산물 선적중량단위를 기준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품목별 물류비 지원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2007년도의 수출 목표는 1억 4,500만 달러로 전년 목표 대비 11%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전라남도는 농산물 28개 품목(채소류 13, 화훼류 7, 과실류 4, 버섯류 2, 기타 2)을 수출하는 농가 및 업체들에 대해 수출금액의 8%(농가 6%, 업체 2%)에 해당하는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규품목은 탄력적으로 물류비 지원을 할 수 있으며, 2007년도 수출물류비 사업비는 총 30억 원(도비 15, 시·군비 15)으로 책정하였다. 한편 2007년도 전체 수출목표는 1억 3백만 달러로 전년 목표대비 4% 증가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경상북도는 신선 농산물 44개 품목을 수출하는 농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금액의 7%(농가수취금액 기준)를 물류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수준은 수출농가는 5%, 수출업체는 2%, 구미원예수출공사는 4%와 같다. 2007년도의 수출물류비 예산규모는 총 12억 원이며, 전체 수출목표는 1억 3천만 달러로 전년 실적 대비 18%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경상남도는 ‘신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총 71개 품목의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단체, 수출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생산농가의 경우 포장비, 선별비 등 상품성 향상 비용을 지원하며, 수출업체의 경우 유통물류비, 포장비, 운송비 등 수출 간접비용을 지원한다. 수출업체의 경우수출금액의 2%, 수출농산물 생산 농단 또는 작목반, 개인, 생산단체와 같은 생산자에게는 수출금액의 3%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시장 개척에 대한 인센티브로 수출금액의 1%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2007년도의 수출촉진자금 지원예산액은 총 71개 품목, 1,893백만 원이며, 전체 수출목표는 9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다.

〈표 3-5〉                      **지자체(도)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2007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7년 지원예산	내 용
경기도	-	지원하지 않음
강원도	600	200농가에 수출촉진 장려비 지원 (농가수취금액 기준으로 농가는 2%, 수출업체는 1%)
충청북도	650	신선농산물을 생산 수출하는 농가 및 단체, 수출업체에 수출 실적에 따라 농가수취가격의 10~13%를 차등지원
충청남도	3,224	기존 과실류, 엽·과채류, 화훼류, 버섯류 등 신선농산물에서 김치, 김, 젓갈, 백삼 등 가공식품으로 지원규모 확대
전라북도	1,644	선적증량단위를 기준으로 유통공사의 물류비 지원단가 적용 (농가 60%, 업체 22%)
전라남도	3,000	농산물 28개 품목에 대해 농가수취가격의 8% 지원 (농가 6%, 업체 2%)
경상북도	1,200	수출금액의 7%(농가수취금액 기준)를 지원 (수출농가 5%, 수출업체 2%, 구미원예수출공사 4%)
경상남도	1,893	수출업체 및 농가 수출금액의 2~3% 지원 (시·군 5~13% 별도지원)
제주특별 자치도	1,060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항공 200원·선박 125원/kg), 감귤(100 원/kg), 축산물(kg당 100원 내외)

자료 : 각 도별 홈페이지 및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http://www.kati.net))

제주특별자치도는 크게 농산물, 감귤, 축산물로 구분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신선농산물, 화훼류,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농가 및 수출업체에 kg당 항공은 200원, 선박은 125원을 지원하고 있다. 감귤의 경우 감귤류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kg당 100원의 물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HACCP 적용 수출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제주도와 수입국간에 물류비(kg당 100원 내외 수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품목은 돼지고기(부산물 포함), 닭고기 등이다. 농산물, 감귤, 축산물의 수출물류비를 합친 2007년도 예산규모는 10억 6천만 원 수준이며, 전체 수출목표는 9천 1백만 달러로 전년의 실적대비 20%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2) 기타 수출지원 사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수출물류비 지원 외에도 자금지원, 생산단계에서의 지원, 해외판촉 및 시장개척 지원 등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1) 자금지원사업

#### ① 우수 농수산물 원료구매자금 지원

채소류(토마토 등 일반채소류, 김치원료), 과일류, 약용류, 버섯류(송이, 표고버섯 제외), 화훼류, 인삼류, 임산물(밤, 표고버섯, 송이버섯), 수산물 전 품목이 지원대상이며, 이들 품목을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수출할 계획이 있는 농림산물 수출사업자에게 원료수매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재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며, 지원금리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연 3.0%, 비농업인 및 일반업체는 연 4.0%가 적용된다. 단,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업체는 1.0%p, 우수업체에게는 0.5%p의 금리를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자부담 비율은 대출금액의 10% 이상(단, 수산물은 융자 100%), 지원용도는 각 품목별 국내 농림수산물 수매비이다. 농림산물의 경우 수매의무액은 대출금액의 110% 이상, 수출의무액은 대출금액의 55% 이상이며, 수산물의 경우

수매의무액은 대출금액의 100% 이상, 수출의무액은 대출금액의 50% 이상이다.

## ② 우수 농수산물 운영활성화 자금 지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우수 농수산물 운영활성화 자금은 수출 목적의 저장, 가공업체 및 생산자 단체를 포함하는 농수산물 수출업체에 지원되며, 원료구매자금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원금리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연 3.0%, 비농업인 및 일반업체는 연 4.0%가 적용된다. 단,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업체는 1.0%p, 우수업체에는 0.5%p의 금리를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다. 자부담 비율은 대출액의 10% 이상이며, 우수 농수산물의 저장·가공·포장·운송비 및 부자재구입비 등 수출경비, 우수 농산물 부자재 비축공급비(우수 농산물 부자재 비축공급업체에 한함)에 지원된다. 수출의무액은 대출금액의 55% 이상이다. 업체의 선정은 지원품목을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로 증명)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12월 중 일간지 및 공사 홈페이지에 차기년도의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있다.

## ③ 유망품목 시장개척자금 지원

신용장(L/C, 구매승인서) 및 수출계약서(공급계약서)를 수취한 창업업체, 신규 품목 개발업체, 우수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유망품목 시장개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지원금리는 4%(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3%)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자부담 비율은 대출금액의 10% 이상이다. 지원용도는 우수 농산물(수출용 원료, 반제품, 완제품) 구매비 및 부자재 구입비, 우수 농산물의 저장·가공·포장·운송비 등 수출 부대경비이며, 수출의무액은 대출금액의 55% 이상이다. 단,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한 대출업체(자)는 공급의무액이 대출금액의 110% 이상이며, 대응수출의무액은 대출금액의 5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④ 우수 농산물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산물 수출사업자에 대하여 저장·가공시설 및 부대시설과 부대장비 구입 등 수출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

상은 농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 간 20만달러 이상이거나 당해연도 수출계획(수출신용장에 의해 증빙)이 10만달러 이상인 업체, 수출자에게 완제품을 최근 2년간 20만달러 이상 공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이다. 자금의 지원금리는 4%(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3%)이며, 대출기간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며, 자부담비율은 대출금액의 25% 이상이다. 지원용도는 농산물의 저장·처리·가공시설 및 부대시설의 증축(설)·개보수, 물류장비 구입 등이다.

재원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며, 지원업체의 선정기준은 업체별 적격심사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배정한다. 적격심사의 평점 기준은 재무구조 30점, 영업실적 30점, 사업타당성 4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부지의 미확보 업체,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비율의 300% 이상인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금의 배정은 업체별 평점에 의거하여 배정하며, 적격심사 40%, 수출추진노력 30%, 수출실적 30%로 하여 평가하고 있다.

### ⑤ 우수 수산물 지원자금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산물발전기금으로 수산물 수출사업자에게 국내산 수산물의 원료구입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생산자단체는 연 3.0%, 일반업체는 연 4.0%의 금리를 적용받으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배정최고한도는 업체당 50억원 이내이다(유통공사 및 수협의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및 우수업체운영자금 대출잔액 기준). 지원시기는 3~12월이며, 자금의 배정시기는 지원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배정(2월중)된다. 배정기준은 수출실적이 70%(최근 2년간 수출실적 금액 80%, 당해 연도 선적분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20%), 수출추진노력 30%(전년도 박람회 등 참가횟수, 수출신장률 및 대출금 포기횟수 등)과 같다.

## (2) 생산단계에서의 지원사업

### ① 농식품 수출컨설팅 지원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컨설팅팀과 각 지사 수출파트에서는 수출농가 및 가공업체, 수출조합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품목별·분야별 국내 및 해외 기술지원단

을 구성하여 수출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밀착형 집중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성 제고를 위한 재배기술과 수확 후 관리에서 수출까지 단계에 대해 집중 지도하며, 해외 재배기술 전문가를 초청하여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한 농가 개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국 검역, 통관제도, 해외시장정보, 수출추진 시 유의사항,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토의하여 애로·건의사항의 해소 및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 병해충 등 애로사항 발생시 맞춤형 상시컨설팅 체제를 운영하며, 수출유망 가공식품 컨설팅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 ②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수출농가, 영농법인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에서는 수출농산물에 대하여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GAP)<sup>35)</sup> 인증신청 접수, 심사 및 인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ISO 9001(국제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품목은 수출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이며,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당해 연도 수출계획이 있는 농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협의 하에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의 일본 수출시 통관상의 편의(선통관 후검사)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본 수출용 채소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출업체 및 농가에 ID를 부여하여 농약의 안전사용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넷째, 안전성 모니터링제를 시행하지 않는 수출용 채소류 수출업체를 사전에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대일 채소류 수출업체의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업체에는 농축산물 판매촉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인 및 공공검사기

35) GAP은 농업환경 보호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에서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의 각종 위해요소를 허용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기준을 의미함. GAP 인증기관별 인증품목을 살펴보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출농산물(약용, 인삼류 제외), 농협중앙회는 내수용 과일, 채소, 양곡, 생약협회는 약재, 인삼공사는 인삼과 같다.



관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 ③ 수출유망품목 개발지원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가공식품 및 신선농산물을 대상으로 수출유망품목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품개발 및 개선, 해외시장 테스트, 판촉활동 및 수출상담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6〉 수출유망품목 개발 지원사업

구 분	가공식품	신선농산물
지원대상	상품개발에서 해외마켓 테스트까지의 일괄 추진이 가능한 업체(수산물 제외)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지원기준	상품개발 · 개선, 마켓테스트, 판촉활동 · 수출상담 등에 필요한 경비	좌동
지원한도	총사업비의 70% (35백만 원 이내 / 1 품목)	물품대를 제외한 사업비의 70% (60백만 원 이내 / 1 품목)
지원시기	업체가 자부담하여 집행 후 사업 종료 시 정산	좌동
모집공고	공사 홈페이지, KATI, 수출입뉴스를 통해 모집공고(3월) 안내	좌동
정산방법	12월 일괄정산 원칙	좌동(단, 조기종료업체는 우선 정산)

### (3) 해외판촉 및 시장개척 지원사업

#### ①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국제박람회 및 개별참가 박람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의 경우 임차료 및 장치비는 1부스(9㎡)에 한하여 100% 지원하며, 항공료는 업체별 1인에 한해 미주 · 유럽지역 및 신규참가 박람회의 경우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종합홍보비(언론매체 광고비) 등은 한국관 일괄 광고방식으로 100%를 지원하며,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전시품 운송 · 통관비

(100만원 한도) 및 냉장비품비의 50%의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개발참가박람회 지원의 경우 농식품 수출업체 및 한국 농식품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500만원(1회 기준) 범위내에서 부스임차료(18㎡ 이내) 및 장치비(Shell부스, 간판, 조명, 선반, 카펫, 전시대, 상담테이블, 의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연간 60회 내외이며, 상·하반기 각 30회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 ② 해외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지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일본(JUSCO 등 65업체), 동남아(자이언트 등 20업체), 미주(세이프웨이 등 7업체), 러시아(MEGA 등 18업체), 중화권(까르푸 등 34업체)과 같이 총 144개의 해외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하여 판촉행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해외의 농식품 수입·유통업체, 대형유통점,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sup>36)</sup>이며, 행사장 임차비 및 장치비, 판촉요원 고용비, 홍보비(TV 등 대중매체, 전단지, 판촉물, 경품, 이벤트) 등의 행사 제비용에 대해 8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 ③ 수출농산물 해외광고

주요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수출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출농산물에 대한 해외광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TV CF광고, 인터넷 홍보, 인터넷 쇼핑몰 등록 등을 통해 김치, 인삼, 공동대표 브랜드(Whimori)의 해외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적 홍보효과가 있는 옥외광고, 시내버스 및 공항라이트박스 광고 등을 실시하거나 전문지 및 일간지, 홍보책자·캘린더 제작 등 인쇄매체 광고도 추진하고 있다.

36) 국내 수출업체는 현지 대형유통업체에 입점 판매 등 거래관계가 있고 판촉행사 추진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 ④ 해외바이어 초청 거래알선 지원

주 수출국 또는 수출확대가 가능한 지역의 우수바이어 및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거래알선 지원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초청방식은 수시초청과 지자체 주관행사 연계초청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항공료 및 3박 4일 기준의 체재경비(미주·유럽은 4박 5일)를 지원하고 있다. 항공료는 Economy Class 기준(VIP 바이어는 Business Class)이며, 체재경비는 200만원(숙박 60, 식비 40, 통역 50, 국내교통비 50)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 (4) 기타 지원 사업

##### ① 환변동보험 가입지원

농축산물 판매촉진비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sup>37)</sup>’ 가입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이는 수출보험공사가 계약시점의 보장환율과 업체 결제시점의 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손실은 보상하되, 이익은 환수)하는 것으로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에 업체당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후 유통공사 각 지사에 보험료지원 신청을 하면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진다.

##### ② 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 운영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한국 수출농산물의 대외이미지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휘모리(Whimori)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운영업체 및 생산자들에게 차별화된 품질관리 및 규격품 생산·선별·포장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품목은 파프리카, 국화, 배, 장미이며, 인센티브는 kg당 파프리카는 76원, 국화·장미는 158원, 배는 미국 89원, 대

37)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 특히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헤지(hedge)할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2월 도입된 제도이다.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면 계약금액을 원화로 고정시켜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환율등락에 따른 환차손익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본계약내용은 수출보험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장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결제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선물환거래와 유사하다.

만 74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 ③ 무역정보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역관련 정보 및 수출주문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 수출입뉴스를 발행하여 수출정보의 실수요자들에게 배포하며, 인터넷 무역거래 알선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첫째, 무역정보, 무역통계 등 농수산물 무역정보([www.kati.net](http://www.kati.net))를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어민, 수출지원기관, 연구기관 및 지자체 등 농수산물 수출정보의 실수요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개 해외 aT센터, 23개국 해외정보조사위원, 해외시장조사요원 등을 통하여 최신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둘째, 농수산물 수출업체 및 농어민, 수출지원기관 등 모든 농수산물 수출정보 수요자들을 위하여 정보이용 고객의 개별적인 특화요구 정보를 주문받아 전문적 맞춤정보형태로 수집·가공·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출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이 있다. 서비스의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장기간의 해외조사나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경우 실비를 청구하고 있다.

셋째, 농수산물 수출입뉴스(FAX신문)를 발행하여 농수산물 수출정보 수요자들에게 인터넷 구독의 형식으로 뉴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발행주기는 주 2회(화, 금)이며, 매회 4면의 지면으로 발행된다. 박람회·특판전 관련정보, 해외시장동향, 거래알선 내역 등의 뉴스정보, 주요 이슈 및 현안과제분석, 수출입동향분석과 같은 특별기획 정보, 일본,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35개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인터넷 무역거래알선 시스템([www.agrotrade.net](http://www.agrotrade.net))을 운영하며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및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인터넷 무역거래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수출업체의 selling offer, 바이어의 buying offer 등록 및 검색, 국내외 수출입업체 정보검색, 해외 바이어 정보, 번역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3. 외국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지원 현황

WTO 농업협정에서는 직접적인 수출보조가 감축대상 보조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수출금융 및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시장개척 지원 등의 간접적 수출지원은 허용보조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제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출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단,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수출물류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에서의 수출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1) 일본

일본은 WTO/DDA 및 FTA에 의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공격적인 수출확대를 모색하게 된 계기는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에 따른 새로운 수출시장의 확대,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일본산 고급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회를 발판으로 수출확대를 위하여 농림수산물도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촉진에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03년 일본 돗토리현(鳥取縣)에서는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그리고 전국 23개 현이 참가한 가운데 ‘농림수산물 일본 브랜드 수출촉진협의회’가 발족되었다. 동 협의회에서는 각 도도부현의 수출촉진을 위한 대응과 해외에서의 수출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국제 박람회 참가 등에 대해 검토하였고, 협의회 규약을 신설하였다. 규약에서는 “각 도도부현이 연대 또는 공동으로 수출에 관한 장벽철폐 및 새로운 판로 확대를 통해 해외 수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세나 검역, 위생조건 등의 제도개선, 해외 박람회 및 상담회, 일본산 농림수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의 전개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4년에 약 8억 400만 엔의 예산을 확보,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수출가능지역 조사나 홍보활동 등을 지원하였으며, 국제부 무역관세과에 수출촉진실을 신설하였다. 일본산 농림수산물의 수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기회 확대에 3억 5천만 엔, 해외에서의 일본 쌀 소비확대 운동 전개에 1억 4백만 엔, 국내외 수요에 대응한 생산체제 강화를 위해 3억 5천만 엔을 확보하였다.

첫째, 일본산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국내산 농산물 해외보급사업을 신규로 도입, 수출의향이 있는 생산자의 해외시장 개척 파견, 해외 세미나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외국무역제도의 조사, 수출업자와 생산자가 프로젝트를 결성한 상품별 수출사례 구축 등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산 브랜드 수출촉진사업을 신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험수출, 전시회, 상담회, 메뉴제안, 해외구매자 일본 초청,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며, 생산자 단체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소요경비의 50%까지 보조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를 통해 외국의 무역제도에 대한 조사사업도 추진하였다.

둘째, 해외에서의 쌀 소비확대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일본쌀 수출가능성 조사, 수출처별 일본쌀 소개 등 판매촉진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에 1억 4백만 엔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셋째, 국내외 수요에 대응한 생산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화, 고부가가치화, 저비용화를 위한 집출하시설, 신선도유지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도입 지원사업에 3억 5천만 엔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한편, 쌀은 대만, 미국, 홍콩, 사과와 배는 대만, 홍콩,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딸기는 홍콩, 녹차는 미국, 연어는 중국, 가리비는 유럽, 모란은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캐나다, 목재는 중국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7〉

##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출종합대책(2004년)

사 업	사업내용	예 산
· 국산농산물 해외보급사업 · 일본산 브랜드 수출촉진 사업	· 외국무역제도 조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홍보, 상품별 수출모델 구축 ·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시회, 상담회, 시험수출, 메뉴제안, 해외바이어 일본 초청, 상품개발 등의 수출촉진활동 지원	3억 5천만 엔
· 수출 촉진형 쌀 소비 확대 사업	· 일본쌀 수출가능성 조사 · 수출처별 일본쌀 소개 등 판매촉진활동 지원	1억 4백만 엔
· 브랜드 농산물 판로확대 사업	· 고품질화, 고부가가치화, 저비용화를 위한 집출하시설, 신선도유지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도입 지원	3억 5천만 엔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김태곤, '일본 농림수산물 수출지원 강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정보, 2004에서 일부 수정 후 재인용)

## 2) 인도

인도의 농산물 수출진흥기관으로는 1986년 인도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Commerce & Industry)가 설립한 농산가공식품추출개발기구(Agricultural and Processed Food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 APEDA)가 있다. APEDA는 수출시장의 개발, 기반시설의 개선, 농산물 품질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주정부 및 관련 조합, 생산자, 수출자에게 직·간접적인 수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수출단지(Agro Export Zone)를 조성하여 품목별·지역별 수출특화 계획을 수립하며, 유럽지역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해 EUROGAP 인증 획득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산물 수출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출농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

원대상은 농산물 수출업자이며, 지원조건은 품질기준을 항상 충족할 것, 품질기준의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APEDA가 요구할 경우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에 협조할 것 등이다. 품질인증마크 사용신청서 및 각 품목별 품질인증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평가팀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인증마크 사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으로서 조사·연구를 통한 시장정보 수집 및 DB 구축, 품질향상, 생산기반 구축 및 효율화, 포장품질 향상, 인적자원 개발, 육류 가공설비의 효율화, 기타 수출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이 있다.

조사·컨설팅 부문에서는 생산 인프라, 시장진출의 타당성 조사 및 DB 구축, 수출업자, 무역단체, 정부기관 등의 타당성 조사 등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인프라 개발부문에서는 수송수단, 수확·포장·저장 등의 지원, 특수저장(고습도, 냉동, 냉장 등) 설비 설치, 증기열, 전자파 처리 설비 설치 등에 지원하고 있다. 수출진흥 및 시장개척 부문에서는 마케팅 테스트를 통한 정보수집 및 수출촉진을 위한 샘플 제공, 홍보자료 발간, 광고를 통한 브랜드 홍보 등에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포장개선부문에서는 표준포장 및 디자인 개발, APEDA가 개발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업체 등에 지원하고 있다. 품질개선 및 관리부문에서는 ISO 9000, HACCP, TQM 등의 인증획득을 위한 품질관리 개선활동, 수출품 테스트를 위한 실험실의 개선 및 인증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기관 활동지원 부문에서는 기술 및 관리인력의 교육훈련, 세미나·그룹활동·국내 조사출장에 대한 지원, APEDA가 주관하는 수출관련 해외 연구출장 등에 대한 지원이 있다. 이외에도 육류가공공장 개선사업, 수출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농약 잔류물 검사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부 지원사업들에 대한 지원수준은 각 사업마다 상이한데, 지금까지 제시된 사업들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3-8>과 같다.



〈표 3-8〉

## APEDA의 사업유형별 수출 금융지원

구 분	사업내용	지원수준
조사 및 컨설팅	생산인프라, 시장진출의 타당성 조사관련 정보전파, DB 구축	APEDA가 100% 부담
	수출업자, 재배업자, 기관, 무역단체의 타당성 조사	20만 루피 한도내 50% 지원
	준 정부기관, 지방정부, 공기업	100만 루피 한도내 50% 지원
인프라 개발	육류 및 원예작물 수송을 위한 특수 운송수단	25만 루피 한도내 25% 지원
	수출업자, 생산자, 협력기관 및 단체	50~100만 루피 한도내 25~50% 지원
	특수저장(고습도, 냉동·냉장) 설비 설치	500만 루피 한도내 50% 지원
	증기열, 전자파 처리설비 설치	500만 루피 한도내 50% 지원
수출진흥 및 시장개척	정보수집 및 수출촉진을 위한 샘플제공	5만 루피 한도내 샘플 및 운송비 지원
	홍보자료 발간	20만 루피 한도내 50% 지원
	브랜드 홍보를 위한 광고	10만 루피 한도내 40% 지원
포장개선	표준 포장 및 디자인 개발	총비용의 50% 또는 50만 루피 중 적은 금액
	APEDA가 개발 또는 채택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수출업체	10만 루피 한도내 30% 지원
품질개선 및 관리	수출업자, 생산업자, 무역단체, 공공기관 등의 실험실 설치·개선	50만 루피 한도내 50% 지원
	ISO 9000, ISO 14000, HACCP, TQM 등	20만 루피 한도내 50% 지원
	수출품 테스트 위한 실험실 개선 및 인증활동	50만 루피 한도내 민간기업은 50%, 대학·정부는 100% 지원
육류 가공 공장 개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육류 도살, 가공설비 개선(공기관)	총소요비용의 85%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육류 도살, 가공설비 개선(공기관)	250만 루피 한도내 25% 지원

## APEDA의 사업유형별 수출 금융지원(계속)

구 분	사업내용	지원수준
관련 기관 활동 지원	기술인력 및 관리인력 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훈련비용의 50% 지원, 국내훈 련비용은 1인당 5만 루피
	재배·수출업자 단체의 세미나, 그룹활 동, 조사출장 등	세미나(국내 10만, 해외 20만) 경비의 50% 지원
	APEDA가 지원 또는 주관하는 수출관련 해외 연구출장	총 경비의 50% 지원
연구개발	수출업체, 정부기관의 연구개발	수출·무역단체는 50만 루피, 정부기관은 100만 루피 한도 내 50% 지원
농약 잔류물 검사 지원	신선과일 및 야채에 대한 농약 잔류물 검사	검사비용의 50%는 수출업자 부담, 50%는 APEDA 지원

주 : 1\$=39루피(2007년 11월 15일 기준 환율)

자료 : Agricultural and Processed Food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www.apeda.com](http://www.apeda.com)),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의 수출진흥기관」, 2002.

한편,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는 인도의 최대 농산물 생산 및 수출지로서 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시스템 개발 및 조정을 목적으로 MSAMB(Maharashtra State Agriculture Marketing Board)를 설립하였다. MSAMB는 첫째,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수출진흥을 위한 포장시설, 예냉, 저온저장창고 운영, 둘째, 망고, 포도, 감, 귤, 바나나, 석류, 화훼류 등의 수출주력품목의 브랜딩 및 마케팅, 해외바이어 발굴, 셋째, 주요 농산물 시장 개발, 농산물 유통개발 기금의 유지 및 관리, 중앙정부 및 주정부 보조금·융자금 수여, 박람회 등의 행사 조직, 넷째, APEDA가 지정한 수출유망품목 수출단지 조성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3) 유럽연합(프랑스, 네덜란드)

2007년 현재 총 27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유럽연합(EU)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 수출보조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농업예산에서 수출보조가 차지하

는 비중도 매우 커 UR 농업협정에 의한 수출보조 감축의무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는 적정 농업생산의 유지, 외국인 농산물 수입으로부터 역내 농업 보호, 수출환급제도에 의한 수출증대 등을 목표로 1962년부터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을 도입하여 곡물, 낙농품,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sup>38)</sup>와 수출보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부터 농정개혁을 추진하여 가격지지와 수출보조 정책 중심에서 직접지불과 농촌개발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개편함과 동시에 WTO/DDA 협상에서도 수출보조 철폐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EU는 여전히 국내 농업보조금과 농산물 수출보조의 최대 사용국이며, EU 전체 공동예산의 50% 이상을 공동농업정책에 배정하고 있다.

특히 EU의 주요 수출품목인 곡물, 축산 및 낙농품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가격이 역내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수출환급(Export Refund) 제도를 통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EU의 농산물 수출보조금은 WTO 회원국 전체 수출보조금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EU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7% 수준이다.

한편, 1999년 베를린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아젠다 2000’에서는 역내 농산물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저가격인 지지가격을 낮추며, 이에 따른 수출보조 감소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보상지불제(Compensation Payments)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UR협상 당시 감축대상보조로 분류된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EAGGF)<sup>39)</sup>의 수출환급 제도는 UR 이행계획에 따라 점차 축소되는 반면, 기금에 대한 개별 회원국의 재량권을 증가시킴으로써 향후 전략 품목의 수출증대를 위한 간접적 수출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1) 프랑스

프랑스에서 농림축산물의 수출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는 1943년 설립

38) 이러한 가격지지정책은 농산물의 과잉생산 및 이의 해소를 위한 수출지원 확대로 이어졌으며, 과거 주요 농산물 수입국이던 EU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39)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 EAGGF)은 가격지지와 수출보조 등 공동농업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젠다 2000’에서는 이 기금의 관리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수평적으로 분권화하여 회원국들이 일정한 기준에 의거, 기금내 국별 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된 국제무역부 산하의 기관으로 CFCE, 1961년에 설립된 SOPEXA, 그리고 신선 과일 및 채소류, 포도주, 자두, 육류 등의 품목별 연합회 등이 있다. 이들 기관 중 CFCE와 SOPEXA의 농산물 수출진흥사업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대외무역센터(Centre Français du Commerce Extérieur : CFCE)는 19세기 말까지 존재하였던 수출관련 기관을 통합, 1943년에 설립된 국제무역부 산하의 기관이다. CFCE는 프랑스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에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가공·분산하고 수출상담을 통한 시장개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장조사, 정부 및 개발은행의 주요 사업정보, 관련 법령 및 세금제도, 국가별 지리·시장정보, 고객 및 무역단체의 요청에 의거한 세부정보 등을 자국 수출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1960년대 초 프랑스 정부는 유럽 최대의 농업국이면서도 농산물 및 가공식품 부문에서 무역적자가 연간 30억 프랑에 달하는 근본적 문제가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의 미흡함에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농식품진흥공사(Société pour l'Expansion des Ventes des Produits Agricoles et Alimentaires Français : SOPEXA)를 1961년에 설립하여 프랑스 농식품의 전 세계적인 수출확대를 꾀하고 있다. 주요 수출촉진활동으로는 특판전, 매스컴을 통한 이벤트 개최, 판촉물 개발, 무역사절단 파견 및 세미나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등이다. 대상 품목으로는 포도주, 주정, 신선 및 가공과채류, 낙농제품, 육류 및 가금육 제품, 수산물 및 해산물 등이다. 2007년 현재 전 세계 35개국에 진출하여 41개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수출촉진활동을 전개하는 유럽의 수출촉진기구 중 하나이다. SOPEXA의 수출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 9월, 일본 및 호주산 치즈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시장에 프랑스산 치즈의 우수한 품질 및 다양성을 소개하고, 항공수송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비싼 이유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프랑스 치즈 판촉활동을 전개하였다. 지원사업으로는 프랑스 치즈 시식행사 주관, 프랑스 치즈판매 우수 소매상 선발 및 자격증 수여, 여성 주간잡지에 광고문 게재, 요리경연대회, 웹사이트 운영 등이다. 그러나 SOPEXA는 프랑스 치즈수출 업체들에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 기준의

참가비로 받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수출지원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오히려 프랑스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 계기 및 기회를 마련해주는 활동 자체가 SOPEXA 지원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SOPEXA는 프랑스산 식품의 대외 수출촉진을 위하여 세계 유명 농산물 국제 전시회의 가장 좋은 부스를 미리 확보하여 프랑스 국가관을 운영하는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가관 부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하여 참가업체들에게 실가로 임대해줌에 따라 금전적 및 시간적 혜택을 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전시 참가업체 안내코너 운영, 바이어 배포용 카달로그에 참가업체 등재, 바이어 및 에이전트의 전시장 방문주선, SOPEXA 직원의 전시장 근무 및 현장 지원, 참가업체 요청 시 홍보, 판촉, 특정 광고활동 등을 대행하고 있다.

## (2)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FCH(Flower Council of Holland)는 네덜란드 화훼산업과 제품을 국내외에 광고·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서 화훼 생산업자 및 도매업자들을 대신하여 절화, 관상수, 정원수 등의 화훼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CH는 특정한 품목 또는 수출업체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사업은 하지 않으며, 무역거래 등의 직접적인 사업도 추진하지 않는다. 다만 네덜란드 전체 화훼농가와 도매업자들의 권익신장 및 이익실현을 위하여 네덜란드 화훼산업 및 화훼제품 전체를 총괄적으로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CH는 전 세계 약 30여개 국가에서 관상수와 화훼에 대한 수요 확대를 위한 활동에 관여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FCH의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네덜란드 화훼산업 및 제품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그리고 기획 프로젝트의 수행이다.

홍보 및 마케팅에 있어서 주요 활동으로는 소매상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및 판매방식 제시, 시장요구에 맞는 트렌드 창출과 제품소개, 소비자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보의 제공 등이며, 이를 위한 활용수단으로서 광고, 전시회 참가, 정보제공, 교육 등을 수행한다.

기획 프로젝트에 있어서 화훼수요를 신장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국내외에서

수행한다. 최근 'Plants for people'이라는 프로젝트(투자비 35만 유로)의 경우 큰 무환경에 식물이 미치는 영향조사와 효과 홍보를 주제로 심포지움 및 워크숍 개최, 연구결과의 수집·발표, 국제적 연구 프로젝트 촉진·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 4) 기타 국가의 수출지원

지금까지 일본, 인도, 프랑스 및 네덜란드의 수출지원 기관과 주요 활동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의 해외농업청(FAS) 및 농업무역관(ATO), 독일의 독일농산물진흥회(CMA), 뉴질랜드의 ZESPRI, 덴마크의 덴마크 농업이사회(DAC), 칠레의 PROCHILE 등 각 국가마다 정부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의 형태로 다양한 수출지원 기관들이 있으며,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정보제공, 시장개척, 판매 및 홍보, 자금지원 등의 수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수출지원을 각 국가의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9〉

주요 국가의 농산물 수출지원기관 및 주요 활동

국 가	지원 기관	성격	재원	해외 사무소	주요 활동
미 국	FAS (해외농업청)	미농무성 산하기관	정부예산	64개소	수출지원정책추진, 식량원조
	ATO (농업무역관)	미농무성 산하기관	정부예산	17개소	무역정보제공, 해외마케팅 활동
프랑스	SOPEXA (프랑스농식품 진흥공사)	정부투자	정부예산	38개소	프랑스식문화 홍보, 시장개척지원, 수출시장조사
독 일	CMA (독일농산물 진흥회)	공적조직	농림식품판매촉 진기금사업비	12개소	해외시장개척, 수출촉진사업 추진, 독일식품산업 종합, 마케팅 지원
뉴질랜드	ZESPRI International	반관반민 조직	수익금으로 운영	9개소	Kiwi 판매 및 홍보, ZESPRI 브랜드 운영
이스라엘	AGREXCO	정부 및 민간투자	정부예산 민간출연	11개소	농산물 직수출지원, Carmel브랜드 운영
스위스	Cheese Union	정부투자	정부예산	8개소	해외판촉행사, 시장개척지원

주요 국가의 농산물 수출지원기관 및 주요 활동(계속)

국 가	지원 기관	성격	재원	해외 사무소	주요 활동
덴마크	DAC (덴마크농업 이사회)	공적 기관	정부예산	2개소	해외시장 개척, 수출진흥 보급 촉진, DANISH 로고 관리
이탈리아	ICE	정부투자	정부예산	81개소	농수산물 수출진흥, 해외시장개척
캐나다	AAFC	정부기관	정부예산	없 음	수출 진흥자금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일본	JETRO	정부관계 기관	정부출연 및 조성기금	76개소	무역촉진, 투자교류, 경제동향조사, 정보수집, 전시회개최 및 참가
대만	TAITRA	비영리무역 진흥기관	무역진흥기금, 업체부담	37개소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시장개척지원, 전시컨벤션 지원
호주	AUSTRADE	정부투자	정부예산	67개소	시장개척지원, 정보조사 및 제공, 투자유치 등
칠레	PROCHILE	정부투자	정부예산, 산업부담	39개소	시장개척지원, 수출촉진사업
말레이 시아	MPOPC	정부투자	정부예산	7개소	무역정보조사 및 제공, 시장개척지원
아르헨 티나	EXPORTAR	정부투자	정부예산	6개소	박람회 참가, 시장정보 제공

자료 : '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지원기관 현황' , 농수산물 유통공사(무역정보), 2007.

## 4. 사례분석 결과와 시사점

### 1) 사례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은 크게 수출물류비 지원, 자금지원, 생산단계에서의 각종 지원, 해외판촉 및 시장개척지원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자체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비 지원은 수출확대

및 수출농가(업체)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 인삼, 축산물, 가공밥 품목에 대해 지원되나, 수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축산물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0〉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 수출농축산물의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확대, 농가소득 증대
지원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 WTO 농업협정 제9조(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 허용) · 농업·농촌기본법 제35조(농산물 수출진흥)
'07년 지원규모	· 288.8억원(2000년 대비 51.4% 증가)
사업추진	· 주무부서 : 농림부, 사업대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원대상 품목	·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 인삼, 축산부류, 가공밥 등
지원대상 업체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15만 달러 이상인 업체
지원시기	· 월별 지원
지원금액, 수준	· 수출물량 × 지원단가, 표준물류비의 25% 지원

1990년부터 2006년까지 농축산물의 수출물류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약 2천 1백억 원 정도이며, 과실류가 전체의 39.0%, 채소류 25.4%, 화훼류 21.5%, 김치류 10.0% 등의 순으로 물류비 지원실적이 많았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내의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예산 및 수출확대에 대한 정책의지에 따라 물류비의 지원 규모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도별 2007년도 수출물류비 지원계획에 의하면, 경기도는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수출컨설팅 및 박람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군 차원에서도 도의 지원과 별도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가 총 32억 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라남도(30억 원), 경상남도(19억 원), 전라북도(16억 원), 경상북도(12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물류비 지원과 더불어 농축산물에 대한 수출지원은 대부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자금지원, 생산단계에서의 지원, 해외판촉 및 시장개척지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11〉

## 기타 수출지원 사업

구 분	세부 사업
자금지원사업	우수 농수산물 원료구매자금, 우수 농수산물 운영활성화 자금, 유망품목 시장개척자금, 우수 농산물 시설현대화 자금, 우수 수산물 지원자금 등
생산단계의 지원	농식품 수출컨설팅 지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수출유망품목 개발 지원 등
해외판촉 및 시장개척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지원, 수출 농산물 해외광고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거래알선 지원
기타 지원	환변동 보험 가입지원, 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 운영, 무역정보 및 기타 서비스 제공

WTO 농업협정에서는 직접적인 수출보조가 감축대상이기 때문에 해외시장 정보수집, 수출금융 및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시장개척 지원 등 간접적 수출지원을 허용보조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4년 농림수산물 수출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산 농산물의 해외보급사업, 일본산 브랜드 수출촉진사업, 수출 촉진형 쌀 소비 확대 사업, 브랜드 농산물 판로확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APEDA라는 수출진흥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수출시장에 대한 조사 및 컨설팅, 수출여건(인프라) 개발, 정보수집과 홍보를 통한 수출진흥 및 시장개척, 수출용 포장 개선, 품질개선 및 관리, 육류가공공장 개선, 연구개발, 농약 잔류물 검사지원 등의 간접적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1999년의 ‘아젠다 2000’을 통해 UR 협상 당시 감축대상보조로 분류된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의 수출환급제도를 UR 이행 계획에 따라 점차 축소시키고, 기금에 대한 개별 회원국의 재량권을 증가시킴으로써 향후 전략 품목의 수출증대를 위한 간접적 수출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대외무역센터(CFCE)는 해외시장 개척관련 정보의 제공 및 수출상담, 프랑스농식품진흥공사(SOPEXA)에서는 특판전, 매스컴을 통한 이벤트의 개최, 판촉물 개발, 무역사절단 파견 및 세미나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수출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OPEXA는 프랑스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마련해주는 활동을 통해 수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의 FCH(Flower Council of Holland)는 화훼제품을 국내외에 광고·홍보하기 위해 특정 업체나 품목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무역거래 등의 직접적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네덜란드 화훼농가와 도매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네덜란드 화훼산업 전체를 총괄적으로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출물류비 지원 및 기타 수출지원 사업, 해외 각국의 수출지원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농림축수산물의 수출(물류)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UR 농업협상에 따른 수출보조 분야의 개도국 우대조항에 의거하여 매년 농축산물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수출물류비 지급수준은 매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sup>40)</sup> 이러한 수출물류비 지원정책은 금지보조인 직접보조를 감축하고 허용대상인 간접보조(해외시장 개척, 무역박람회 참가지원, 수출신용 및 수출보험 등)로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개도국 우대조치에 의한 지원이기는 하나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현재 수출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출물류비는 향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특정 연도에 완전 폐지를 목표로 감축의무가 부과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

40) 1990년에는 453백만 원 수준이던 수출물류비 지원은 1995년 1,553백만 원, 2000년 18,488백만 원, 2005년 26,266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서 볼 때, 수출물류비에 대한 지원을 수출단지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시설현대화, 산지유통센터 설치)이나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등을 통한 지원, 해외시장의 개척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출지원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이러한 간접적 수출지원방식의 일환으로 수출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업체의 수출보험제도 가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농수산물 수출업체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가 계약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 환차손 등으로 인한 손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수출업체들이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며, 수출가격차 및 환차손은 업체 경영에 매우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의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주요 선진국에서 수출지원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출보험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수출보증보험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의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이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외국에서 대부분의 수출진흥기관들이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마케팅, 홍보를 통해 자국 농산물의 수출확대에 많은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규품목뿐만 아니라 기존 품목에서도 수출 확대 잠재력이 큰 품목의 경우 집중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 제4장 수출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지원방안

우리 정부는 수산물의 무역수지를 해소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5년까지 수산물 수출을 두 배로 늘린다는 「중장기수산물수출진흥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최근의 가파른 유가상승과 이에 따른 수출물류요금 인상, 노무비 증가 등의 원인으로 수산물 수출물류비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수출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물류비 지원방안을 포함한 물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첫째, 수출수산물 물류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하고, 둘째, 수출수산물 물류지원의 한계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셋째, 수출수산물의 물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수출수산물 물류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 1) 수출확대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향상

수산물 물류지원은 직간접적으로 수출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수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게 되고, 이로 인한 수출확대는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가격을 인상시키게 되어 결국 생산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물류비 지원 및 절감 노력은 수출가격에 포함되어 국내 수출생산조직과 수출가격협상, 바이어와의 가격협상에 활용됨으로써 국내에서 어가의 수취가격 인상,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해조류 및 패류 등의 생산자는 대부분이 영세한 어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수출물량의 확대 및 축소는 직접적으로 생산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예로, 넙치 국내가격의 결정은 거의 일

본 수출물량 및 가격이 정해진 뒤 이에 맞추어 결정되고 있어 넵치의 대일본 수출은 넵치 어업인들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 2) 국내수산물의 품질경쟁력 강화

수산물의 특성상 품질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냉장·냉동품의 경우에는 생산에서 최종수출지역까지의 **Cold chain system** 마련을 통해 선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해조류의 경우에는 이물질 선별기의 성능으로 품질이 결정되므로 국내 수산물이 국제시장에서 품질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단계별 물류지원정책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국제시장에서의 수출 수산물의 품질경쟁력 강화는 곧 국내 수산물 품질경쟁력 강화를 수반하게 되어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수산업의 생산기반 유지

WTO/DDA 및 FTA 협상의 결과로 대외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수산물의 수입규모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갈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수산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양자간 FTA의 확대로 가격 경쟁력 또는 품질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업종 또는 품종의 쇠퇴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수산물 수출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전략은 대외개방 시대에 수산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 4) 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대외적 이미지 제고

최근 대외개방의 진전에 따라 각국의 관세가 인하되는 반면에 식품위생에 대

한 검역이 철저해지는 등 비관세장벽을 엄격하게 두고 있어 실질적인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용 수산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식품의 포장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요한 요소이지만 소규모 수출업자가 많은 수산부문에서는 수출품의 판매에만 급급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포장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이를 통한 판매촉진의 효과를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고려하고, 해외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판매한다는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 5) 농업부문과의 형평성 제고

우리나라에서는 농업과 수산업의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정서상 또는 처해 있는 현실상 농민과 어업인의 지위가 대다수의 국민들 사이에서 거의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에 관한 부분은 농업협상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농업을 제외한 타부문은 수산업을 포함하여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수혜대상으로서 농업과 수산업은 전혀 다른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산물 수출물류의 지원과 관련해서만 본다면 농업의 경우에는 개도국 지위를 받게 될 때까지 수출물류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 이미 상당기간 동안 수출물류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일체의 수출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에서와 같은 지원방식은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에서의 물류지원을 통해 농업부문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2. 수출수산물 물류 지원방안

### 1) 수출수산물 물류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 ①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함

수출수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이므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물류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국가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직접적인 물류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상대국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을 정도의 최소한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물류비 지원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한다.

### ② 국내 수산물 생산 어업인의 혜택유도

수출물류 지원은 궁극적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수출지원이 국내 어업인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출물류 지원 시에는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수산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품목별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

수산물의 종류별·품목별로 물류상의 애로요인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법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수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산물을 크게 해조류, 어류, 패류, 기타항목으로 나누어 그 특성에 따라서 지원방안 마련을 달리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품목별로 차별화된 정책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 2) 수출수산물 물류지원방법

### ① 수출수산물 물류비 지원방법 및 절차

수출수산물 물류지원의 대상은 수출실적이 있는 자 또는 물품공급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다. 농업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수출실적이 15만 달러(US\$) 이상인 업체로 한정하고 있지만 수산업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수출실적이 있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수출상위 20개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품목별 10만 달러 이하를 수출하는 업체가 20%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수출기업을 15만 달러 이상의 업체로 한정할 경우 상당수의 수출업체들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수출업체 중 순수 유통업체는 제외하고, 직접 수산물을 생산 또는 가공하거나 최소한 선별작업장을 보유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가공제품은 주원료가 국내산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주원료의 일부를 외국산과 혼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국내 수산물 수출기업의 수출물류 지원정책이 국내 수산물 생산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출수산물 물류지원의 기준은 표준 수출물류비의 8%를 지급하도록 한다.<sup>41)</sup> 이때 표준 수출물류비의 8%를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수산물 평균 수출단가 기준으로 0.98%를 지원하게 되므로, 수출단가의 1% 범위를 넘지 않는 수준이 된다. 이렇게 물류비 지원을 최소한으로 하는 이유는 향후 대상 수입국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분쟁 시 상대국의 소송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표 4-1〉 수출물류비 지원에 따른 수출단가 대비 보조금 비율

수출물류비 지급 비율	7%	8%	9%
수출단가 대비 보조금 비율	0.61%	0.98%	1.01%

주 : 표준수출단가 대비 물류비가 12.2%일 때의 예상 가능한 보조금 비율임

또한 실제적인 물류비 지원시에는 실제 수출물류비의 8%를 지원하고, 수출물류비 소요내역을 증명서로 제출하도록 한다.

단, 수출단가(FOB 가격)의 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특정류에 대한 업체별 기본물류비의 연간 지원한도는 해당 류(해조류, 어류, 패류, 기타)의 연간 지원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류별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류별 지원에 있어 형평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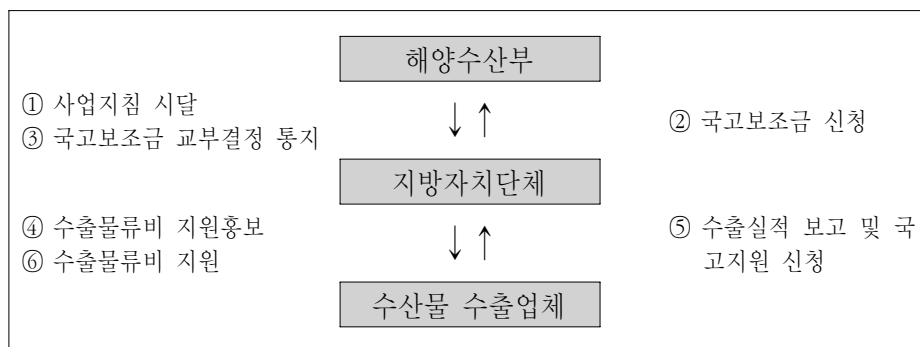
41) 농업의 경우에는 수출물류비의 2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주관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지침을 시달하면 수산물 수출회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해양수산부가 교부결정을 통지하게 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수출업체들에게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게 되며, 수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물류비를 지원하게 된다.

〈그림 4-1〉

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체계



또한 실제 수출물류비 지원시 예상 총소요액을 산정해 보면, 2006년 기준으로 1,089백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으므로 총 수출금액의 평균 수출수산물 물류비 12% 중 8%의 물류비를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총 소요액은 약 9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sup>42)</sup> 단, 농업에서의 물류비 지원기준인 25%를 적용한다면, 총 소요액은 3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총소요액>

소요예상금액 :

$$1,089\text{백만달러} \times 12\%(\text{물류비}) \times 8\%(\text{물류비 지급비율}) = 99\text{억원}$$

(1\$=950원 기준)

농업과 동일 기준 적용시 :

$$1,089\text{백만달러} \times 12\%(\text{물류비}) \times 25\%(\text{물류비 지급비율}) = 310\text{억원}$$

42) 농업의 경우 2006년 수출물류지원금액으로 약 268억원 지원

## ② 생산지에 기반을 둔 품목별 지역별 수출클러스터화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요인 중 하나는 국제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점점 안전성 검사 등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위생수준을 맞추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HACCP 공정 등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처리 공정을 실시하여 수산물을 생산하기에는 영세한 수산물 수출업체들이 비용측면에서 감당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동일 품종 또는 유사 품종을 수출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품종별 집단화를 통해 HACCP 제도를 공동추진하고 공동으로 제품 및 포장 등을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집단화를 통한 수출클러스터화를 추진하게 되면, 원자재 구입을 공동으로 진행하므로 물류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자재 수집이 용이한 측면도 있으며, 비용측면으로 본다면, 가공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비용을 공동 부담할 수 있어 비용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현재에는 부산감천항에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조성이 완료되면 수출업체들이 입주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수출이 용이한 지역에서의 물류지원시설은 부산 또는 광양 등지에서의 수출단지로 충분하지만, 수산물의 특성상 소량 생산되고, 원자재의 확보가 불확실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생산지에 기반을 둔 수출클러스터화를 통해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영세생산업체들은 포장재료비에 대해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포장의 컬러 정도가 8도, 9도가 되면 1천만 원 이상 동판제작비가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류별 또는 품목별 클러스터화를 통해 포장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조류의 경우에는 품질관리를 위한 이물질 선별기(약 2억원), 자외선 살균기 등의 지원장비의 고도화가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수산물 수출클러스터화를 할 경우 이들 장비에 대한 지원 및 공동이용을 추진하는 데 용이한 측면이 있다.

### <중소요약>

수출회사 단지화 사업(5개 주요 수산물 산지중심)

50억 원 × 5개 권역 = 250억원

### ③ 수산물 수출현지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수산물 수출업체 중 대부분이 자사의 물품이 수출되는 현지에서의 타 경쟁국 수출품의 가격동향 및 점유율 등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3)</sup> 또한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가지고 수출하는 업체는 규모가 큰 소수 업체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우, 바이어들이 찾아서 물량을 요구하면 수출하는 매우 소극적인 수출전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20개에 대해 매달 수출현황, 수출지에서의 가격동향, 품목별 점유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지 실태를 알고 적극적으로 수출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어가 및 수출회사에 대해서 수출입조합에 전담팀을 마련하여 컨설팅 사업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컨설팅 사업의 지원내용은 상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톿 수출업체와 생산업체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품질별 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출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단계에서 선별작업의 중요성을 어가에 인지시키고, 이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입국 검역, 통관제도, 수출추진시 유의사항, 문제점 등에 대해 농업부문에서와 같이 상시 컨설팅 체제를 운영하여 수출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 고품질 안전수산물 생산 지원

수출수산물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기적으로 고품질화를 유도하여 세계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부문에서의 사업과 같이 수산부문에서도 수출수산물에 대해 우수수산물관리제도 인증사업을 수행하고, ISO 9001(국제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50% 지원을 통해 수출수산물의 고품질화 유도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수산물의 항생제검사, 수질검사, 선별포장 인력에 대한 검사 등을 공인 및 공공검사 기관에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90%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sup>44)</sup>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의 하에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의 일본 수

43) 수산물 수출업체 담당자 전화 인터뷰 결과.

44) 농업의 경우에는 잔류농약 검사의뢰 수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음.

출시 통관상의 편의(선통관 후검사)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여, 일본 수출용 채소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출업체 및 농가에 ID를 부여하여 농약의 안전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수산부문의 넙치수출시 원용한다면, 수출검사 및 통관시일을 줄일 수 있어 간접적인 수출물류지원과 고품질 안전수산물 생산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⑤ 수출수산물 위생 및 선도유지를 위한 포장지원

수산물의 위생 및 선도유지를 위해서는 포장재료 및 포장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며, 포장의 재질 및 방법에 따라서 안전한 수산물의 수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수출수산물에서 차지하는 포장재료비의 비중은 패류의 경우 23.9%, 해조류 23.3%, 오징어 등 기타류 28.8%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국제운송비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별로 살펴보면, 김, 굴, 오징어 등이 타 품종에 비해 포장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수산물의 위생 및 선도유지를 위한 기술개발 또는 우수한 포장자재 사용으로 인한 포장재료비의 증대는 영세수산물 수출업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많은 수출업체들이 수출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장재의 개발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굴과 같은 패류의 포장은 안전성과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전보관 기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심미적인 특징을 부가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 형성 및 국내외적인 제품 홍보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넙치의 경우 활어상태의 수출로 인한 물류비가 수출업체들에 부담이 있지만 최근 넙치의 살을 포로 떠낸 뒤 급속 냉동포장한 ‘숙성회’를 미주시장에 유통시키게 되면서 물류비를 줄였을 뿐 아니라 25일 가량이 경과되더라도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숙성회 수출업체로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개발을 통해 유통기한이 길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산물을 업체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제5장 결 론

우리 정부가 수출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물류 지원방안을 대상으로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제한적인 물류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수출물류의 효율화를 통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특히 전자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수산물의 특성상 큰 애로요인의 하나인 물류에 대한 지원은 수출수산물의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출물류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출수산물에서 물류비의 비중은 평균 12.2%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이는 수산물의 품질을 결정 짓는 선도유지(산지에서 수출국까지)에 들어가는 물류비용이 과다하고, 산지별로 소량 생산되는 원자재를 확보해서 선별 및 표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물의 수출시 검사기준이 까다롭고, 긴 검사기간 중 질병 및 폐사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수산물 수출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지원은 직접적 지원보다는 수출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간접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출지원에 따른 무역소송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출수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WTO 체제하에서 매우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물류비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WTO SCM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출수산물의 물류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결론 도출에

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향후 관련연구에서는 대안별 물류비 절감 및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종희 · 길광수 외, 「21세기 글로벌 해운 · 물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
- 권오경, 「우리나라 물류비의 결정요인과 추이」, 교통개발연구원, 1995.
- 김병률 외, 「농산물 수출조직의 진단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KREI, 2005.
- 김태곤, “일본 농림수산물 수출지원 강화”, 세계농업정보, KREI, 2004.
- 농림부, 2007년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 농림부, 2007.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7년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
- \_\_\_\_\_, “2007년도 수출지원사업 안내”, 2007.
- \_\_\_\_\_, “수출물류비 지원현황 내부자료”, 2007.
- \_\_\_\_\_, “일본 농림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현황 및 지원정책”, 2007.
- \_\_\_\_\_,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원가산정」, 2004.
- \_\_\_\_\_, 「주요국의 수출진흥기관」, 2002.
- 박현희, “WTO/DDA 농업협상에 따른 수출물류비 지원방안 연구”, 창업정보학회  
지 제9권 제4호, 2006.
- 어명근 외, 「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 주문배 외,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방안」, 해양수산부, 2001.
- 주문배, “WTO 뉴라운드 대비 수산보조금 지원현황과 협상대책”, KIEP, 2003.
- \_\_\_\_\_, “주요 국제기구의 수산보조금 분류기준에 관한 비교연구”, 「월간 해양  
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 \_\_\_\_\_, “UNEP Workshop(2001.2) 수산보조금 제안서의 주요내용과 쟁점”, 「해  
양수산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 \_\_\_\_\_, 「WTO 뉴라운드 수산부문 대응전략」, 해양수산부, 1999.
- 한응수, 식품물류, WINBOOKS, 2005.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http://www.at.or.kr))
- APEDA(India) 홈페이지([www.apeda.com](http://www.apeda.com))
- JETRO(Japan) 홈페이지([www.jetro.go.jp](http://www.jetro.go.jp))

- Diamond, P.A. and J.A. Mirrlees, "Optimal taxation and public production, part I : production 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61, 1971
- Feldstein, M., "Tax Policy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NBER working paper 4851, 1994.
- Giovannini, Alberto, R. Glenn Hubbard, and Joel Slemrod, *Studies in International Tax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 Lerner, A.P., "The Symmetry between Import and Export and Taxes", *Economica*, Aug 1936.
- Haufler, Andreas, *Taxation in a Global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Tanzi, V., "Globalization, Tax Competition, and Future of Tax Systems", IMF working paper 142, 1996.
- USDA FAS, "Export Assistance, Food Aid, and Market Development Programs \_\_\_\_\_, *The competition in 2002 - U.S. and Competitor Expenditures for Export Promotion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Products*, 2004.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홈페이지([www.fas.usda.gov](http://www.fas.usda.gov)).
- SOPEXA(France) 홈페이지([www.sopexa.com](http://www.sopexa.com))
- WTO 홈페이지([www.wto.org](http://www.wto.org)).



## 부 록

### 수출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지원방안 마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수출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지원방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기업들의 수출물류비의 비중 및 수출물류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단순히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응해주신 내용은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밝히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비록 바쁘시더라도 효과적인 수출물류 지원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 ◆주관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책임연구원 : 주문배 연구위원
- ◆담당연구원 : 마창모 연구원
- ◆조사기관 : (주)IRC조사연구소
- ◆담당자 : 김희정 차장(☎)02-783-0617 (Fax)02-783-0235
- ◆Email : hjkim@irc.ne.kr

## 1. 기본 사항

회사명		응답자 성명	
연락처		수출조건 (FOB등)	

## 2. 귀 회사의 2006년도 수출실적?

(귀사의 수출 수산물 중 주요 상위 3개 품목)

순번	품목	수출량(톤)	수출금액(원)
1			
2			
3			

## 3. 2006년도 품목별 수출단가 및 물류비(귀사의 수출 수산물 중 주요 상위 3개 품목)

품목명칭 (가공형태)	수출 국가명	품목별 수출단가 (원/kg)	컨테이너 규격	운반형태 (Reefer, Dry)	수출단가 대비 물류비 비중(%)

## 4. 2006년도 각 물류비용 항목별 비용조사(귀사의 대표 수출품목 1개에 한함)

1) 선별포장비 (인건비와 선별작업장비, 작업장 사용료 포함)

선별포장비 (원/kg)	선별비 중 인건비의 비중 (%)	선별비 중 선별작업장 사용료(%)

## 2) 포장재료비

포장재료비 (원/kg)	재질	규격

## 3) 국내운송비

국내운송비 (원/kg)	국내운송비 중 상하차비 (%) (창고에서의 상차비+선적항에서의 하차비)	국내운송비 중 운송비의 비중(%) (창고에서 선적항까지의 운송비)

## 4) 국제운송비

국제운송비 (원/kg)	국제운송비 중 해상 (항공)운송비의 비중(%)	국제운송비 중 수입국 국외통관비의 비중(%)	국제운송비 중 수입국 내륙운송비 비중(%)

## 5) 수출통관비 (기준: 2006년 1년 총액)

수출통관비	항만시설 이용료	컨테이너세	서류발급비	수출통관 수수료	터미널화물 취급수수료	LCL화물 작업료

5. 2006년도 수출국에서의 판매가격 및 경쟁국 동일 품목의 판매가격을 적어 주십시오.

(귀사의 수출 수산물 중 주요 상위 3개 품목)

품목명칭 (가공형태)	수출 국가명	수출국에서의 판매가격 (\$/kg, \$/개당)	경쟁국의 판매가격(\$/kg, \$/개당)1)				
			중국				

주 1) 경쟁국명과 판매가격의 단위를 직접 명시해 주세요.(\$/kg , \$/개당 등)

6. 다음은 수산물 수출회사에서 수산물 수출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애로요인들입니다. 귀사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정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어려움	② 약간 어려움	③ 보통	④어려움 없는편	⑤ 전혀 어려움없음
① 원자재 확보					
② 수출 물류비의 과다					
③ 수출통관 전 수출검사					
④ 수출지 통관의 어려움					
⑤ 수출품의 선도유지					
⑥ 수산물 보관비의 과다					



9. 다음의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원부자재 조달방안 마련 (       )
- ② 수출 수산물의 포장개발 및 브랜드화 (       )
- ③ 수산물 수출시 행정절차 간소화 (       )
- ④ 해외시장 개척지원 강화 및 수출입정보 제공 등 (       )
- ⑤ 수출 수산물 위생관리 컨설팅사업 확대 (       )
- ⑥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 마련 (       )

10. 귀사는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 어떤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수출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지원방안

---

2007年 12月 27日 印刷

2007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李 正 煥  
發行人

發行處 韓國海洋水産開發院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

組版・印刷/한성애드컴 2266-6559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